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 學位論文

한국 마라톤경기의 형성과 역사적 의의

嶺南大學校 大學院

體育學科

體育學專攻

朴 鍾 振

指導教授 金 東 奎

2012年 12月

博士 學位論文

한국 마라톤경기의 형성과 역사적 의의

指導教授 金 東 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體育學科 體育學專攻

朴 鍾 振

朴鍾振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12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II. 마라톤경기의 역사	6
1. 마라톤경기의 기원	6
2. 마라톤 경기기록의 변천	11
III. 한국 마라톤경기의 형성과정	22
1. 한국 마라톤경기의 도입과정	22
2.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개양상	23
3. 한국 마라톤경기의 기록사	31
4. 한국 마라톤경기의 인물사	40
IV. 한국 마라톤경기의 역사적 의의	48
1. 한국 마라톤경기의 민족사적 의의	50

2. 한국 마라톤경기의 인물사적 의의와 사건	58
V. 결론	90
참고문헌	93
영문초록	99
부록	101

그 립 목 차

그림 1.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3위 남승룡	51
그림 2.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주자 손기정	53
그림 3.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 서운복: 세계기록 갱신	55
그림 4.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석권하고 귀국한 최윤철, 손기정, 함기용, 송길윤(왼쪽부터)씨가 환영행사장에서 참석한 모습	56
그림 5. 최초의 일장기 말살 사건과 조선중앙일보의 폐간	59
그림 6. 손기정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승룡	65
그림 7. 손기정 투구	69
그림 8.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이후 경교장에서 기념사진	72
그림 9. 조선 중앙일보 일장기 말소	86
그림 10.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87
그림 11. 이길용의 일장기말소사건 자술 회고록	8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은 프랑스 소르본느대학(Universite de la Sorbonne)의 한 역사학교수의 착상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P, Coubertin)이 채택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마라톤경기는 한국 민족의 역사와 특별한 관련성을 맺는다. 비록 일장기를 앞세운 悲運의 대회였지만, 한국 민족이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첫 금메달과 함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 세계적인 스포츠영웅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등 민족의 신문들은 일장기를 삭제하여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일본은 이러한 언론 활동을 항일운동으로 간주하고 언론탄압을 강행하였다.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은 체육인 손기정과 언론인 이길용이 이루어낸 감격의 대서사극이며, 스포츠와 언론이 이룬 민족적 항쟁으로 평가되는데(심상섭, 조문기, 2012), 이러한 사건을 촉발시킨 매개체가 바로 마라톤인 것이다. 따라서 마라톤은 한국민족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적 자부심을 형성시킨 항일 민족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실제적으로 마라톤은 국가주의 혹은 인종(유럽) 우월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역사적으로 조작하여 전설로 만든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약 1,200년 동안 그리스 민족의 제전행사로 거행되었던 올림픽 아 경기에 마라톤경기는 없었던 것이다. 마라톤 경기는 허구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를 통해 조직화된 경기이며(박용남, 하남

길, 2012), 명칭도 근대올림픽대회 때 처음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 올림픽종목으로 탄생한 마라톤은 그리스 국가주의 혹은 우월주의, 즉 고대 아테네가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마라톤평원에서 물리치고, 그 승전을 길이 남기고자 만든 페르시아전쟁의 유산에서 작성한 상상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인이 처음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에 어렵게 참가하여 마라톤 종목에서 세계의 마라토너와 경쟁하여 우승한 챔피언을 높이 평가하고,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에 육상이 처음 도입된 것은 외국인 교사들의 지도하에 거행된 ‘화류회(花柳會)’로 부터이다. 이는 체육운동 초창기의 발판이 되었고, 학교운동회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나현성, 1985). 최초 운동회 성격의 육상대회에서 벗어나 1920년 5월 16일에는 조선체육회가 발족되어 용산 신 연병장에서 거행된 협회주최 육상경기대회에서 경성 일주 마라톤 대회가 거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마라톤은 공식대회의 참가와 공식코스 거리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경기화 되었으며, 각종 육상 경기대회 및 종합 경기대회와 국제 경기대회에서 좋은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마라톤은 손기정과 황영조의 올림픽 우승으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경기종목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이 우승함으로써 마라톤은 한국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스포츠종목이 되었다. 마라톤으로 인하여 피폐한 민족감정을 조선 만세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유근직, 박기동 및 김명권(2012: 87)은 “손기정은 올림픽 이후 조선인 사회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에 이미 손기정 기념체육관 건립까지 거론될 정도로 조선인들의 관심과 흥분은 넘쳐흘렀고, 이를 노골적으로 억누를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로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마라톤은 해방을 전후하여 유일한 ‘코리아의 존재적 알림’이었다. 따라서 마라톤 경기는 일장기말소사건과 연결되면서 의미가 확산되었고, 민족정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즉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부터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서윤복,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 함기용,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황영조의 쾌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마라톤은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한국 스포츠의 역사에 있어서 마라톤은 독립과 저항의 시대정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사적 색채가 두드러진 운동종목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마라톤의 인문학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찬모(1997), 황영조(1999), 김기한(2004), 박종진과 김동규(2011), 주동진(2011), 손환(2012), 유근직, 박기동, 김명권(2012), 정진석(2012) 등이 손기정의 생애와 사상, 마라톤 우승이 한국 민족에게 미치는 역사적 의의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임석원과 조문기(2009b)는 서윤복의 생애와 체육활동을 고찰하였고, 김동규와 주동진(2004), 주동진과 고흥렬(2004) 등은 조선중앙일보의 사장과 조선체육회 회장을 역임하고 일장기말소사건의 중심인물인 몽양 여운형의 체육문화활동을 통해 그의 체육사상을 고찰하였다. 이 밖에도 손환(2006), 주동진과 김동규(2006), 주동진(2011) 등은 일장기말소사건을 주도한 체육기자 이길용의 생애와 체육사상, 그리고 일장기말소사건과 민족의식 등을 탐구하였다.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마라톤의 역사철학적 접근은 주로 스포츠영웅 손기정에 초점을 맞춘 인물사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와 동반된 한국 마라톤의 변천과정 고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금까지 한국에서 마라톤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찾으려는 학술적인 시도는 마라톤에 내재된 역사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한국 마라톤의 역사철학적 접근을 ‘역사적 의의’라는 학문적 범주로 유인하여 종합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과 성과를 탐색하여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는 한국 마라톤의 전개양상을 탐색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한 축인 마라톤의 기여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논문의 성격상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즉 유효한 사실을 읽어내기 위하여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논문, 단행본,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Ⅱ. 세계마라톤의 역사, Ⅲ.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 Ⅳ. 한국 마라톤경기의 민족사적 의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과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당시의 보도 사진이나 영상을 탐구하였다. 특히 박물관이나 전시회, 즉 손기정 전시회에 진열된 사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 보도된 사진들을 통해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박물관의 유물과 유적 들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사진 분석 작업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사적 재료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라톤의 역사를 탐색한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은 그리스의 전쟁, 즉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인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승리한 아테네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경기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마라톤경기의 출현 배경'과 '세계마라톤의 경기기록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탐색한다. 한국 마라톤의 역사적 접근으로써 형성과정은 도입과정과 전개양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마라톤의 전개양상은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5단계로 설정하여 마라톤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한국 마라톤의 기록사를 살펴보고, 기록정신을 중심으로 인물사를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마라톤경기의 역사적 의의를 탐색한다. 즉 마라톤경기를 인물, 기록, 그리고 사건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II. 마라톤경기의 역사

기원전 490년, 강력한 페르시아군대가 아테네 북동쪽 해변의 마라톤을 강습했다. 이를 그리스 연합군이 부근의 지형을 이용하여 격파하고, 한 병사를 전령으로 세웠더니 그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라는 외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 시인이 기록하였다. 그것을 소르본느의 역사학자가 쿠베르탱에게 알리면서 그 길을 달리게 하는 것을 권하였다. 쿠베르탱은 그 아이디어가 고대 그리스와 근대 올림픽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고 수용하면서 마라톤이라는 가혹한 경기가 탄생한 것이다.

1. 마라톤경기의 기원

마라톤은 일반적으로 고대 아테네의 병사 필리피데스(Pheidippides)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규, 1999). 육상경기 중 주로 포장된 아스팔트를 달리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 순위를 겨루는 장거리 도로경주로 올림픽정식 종목이다(황영조, 2004). 이러한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기원설

기원전 490년 봄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강점하기 위하여 전투함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로 향한 페르시아 함대는 중도에 뜻밖의 태풍을 만나 300척의 전

투함이 전부 바다에 가라앉고, 2만여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페르시아 함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하게 되었다.

이듬해 봄(B.C. 491)에 다시 페르시아 국왕은 그리스의 각 도시국가에 사신을 파견하여 ‘흙과 물’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투항하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가장 큰 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완강히 저항하였다.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의 사신을 산위로 끌고 올라가 깊은 못에다 내던졌고, 스파르타인들은 사신을 우물 속에 수장시켰다. 이에 격노한 페르시아 왕은 전투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장군을 시켜 대군을 거느리고 제2차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하였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강대한 함대는 에게해를 건너 아테네 성에서 동북으로 60km떨어진 마라톤(Marathon) 평원에 상륙하였다.

이로 인해 망국의 위험이 아테네의 상공을 뒤덮었다. 아테네인들은 즉시 달리기를 잘하는 필리피데스(Pheidippides)를 우방인 스파르타에 파견하여 원조를 청하였다. 필리피데스는 이를 동안 150리를 달려 스파르타에 이르렀다. 뜻밖에도 스파르타 통치자는 원군을 파병하는데 동의 하였으나 자신들의 풍속인 “달이 둥글어지기 전에는 출전할 수 없다. 달이 둥글어지면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출전을 거부하였다. 사실 그들은 출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장령들은 즉시 전체 공민들, 노예들까지도 군대에 편입시켜서 총사령관 밀티아데스(Miltiades)의 인솔로 마라톤 평원에 나아가 페르시아 군대와 결전을 벌였다. 아테네 군대는 불과 1만 명밖에 안 되었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었다.

밀티아데스는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필리피데스를 찾았다. 그는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즐겁게 그 임무를 맡아 나섰다. 그는

마라톤 평원으로부터 아테네 중심광장까지 달려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들 마음 놓으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로 그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에 예속되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반도의 경제, 문화가 번영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영웅 필리피데스의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에 한 종목으로 마라톤 경기를 채택하였다. 선수는 마라톤에서 출발하여 그 당시 필리피데스가 뛰었던 그 길을 따라 아테네에 도착하게 하였는데 그 길이가 40.2km이었다(김동규, 1999).

이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어 마라톤은 1896년 근대올림픽 제1회 아테네대회 때부터 육상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마라톤평야에서 아테네의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코스를 달렸다(신현경, 1996). 즉 “BC 490년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에 이르는 거리를 달렸다는 한 그리스 병사의 전설적인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는 것이다.

훗날 이를 측정해 본 결과, 당시의 거리는 36.75km로 밝혀졌으나, 제7회 올림픽까지는 대회 개최지의 여건에 따라 동일된 거리가 아닌 40km 전후를 달렸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마라톤경기의 거리를 일정하게 통일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08년 제4회 런던올림픽대회 때 윈저궁전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거리 42.195km가 마라톤의 정식거리로 채택되었다(황영조, 2009). 즉 1924년 마라톤경주의 길이가 42.195km로 확정되었고, 이는 1908년 올림픽대회 때 윈저 궁으로부터 런던 스타디움 로열박스 앞까지의 거리인 것이다. 영국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것이다. “이 거리는 물론 위에 설명

한 전설적인 마라톤의 유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거리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당시 영국 왕실에서 마라톤의 출발과 결승 광경을 편안히 보기 위하여 윈저 성의 동쪽 베란다에서 마라톤이 시작되어 화이트 시티(White city) 운동장에서 끝을 마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종래의 마라톤 거리 40km 235m보다 약 2km가 긴 마라톤 코스가 정해졌으며, 이 새로운 거리는 런던 올림픽 이래로 마라톤의 공식 거리로 채택되었다(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그러나 마라톤 코스는 난이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국제 육상경기연맹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세계기록을 일람표로 만들지 않는다(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고 한다.

2) 허구적 조작설

마라톤의 유래와 실재에 대해서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종의 허구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송병록(2006)은 마라톤 기원의 허와 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기원전 512년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 제국의 다리우스 1세(Darius I, B. C. 549-B. C. 486)는 오리엔트를 통일하여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복속시켰으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 페르시아를 방해했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아테네의 지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눈치 채고 격분한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정복을 결심하여 B. C. 492년 제1차 페르시아전쟁을 일으켜 아테네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함으로써 실패하였고, 2년 후인 B. C. 490년 제2차 원정을 단행하였다.

페르시아군은 에게 해를 가로질러 곧바로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 상륙하였다. 그러자 아테네 내부에서 페르시아군과 대항해 싸울 것인가를 놓고 화전(和戰)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아테네 장군 밀테아데스(Miltiades)가 “아테네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도, 아테네를 자유롭게 해서 영원히 빛나는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하자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페르시아군이 상륙한 곳은 길이가 9Km에 이르는 마라톤 평야의 북단부였다. 비록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하에 뚝뚝 뭉친 밀테아데스의 군대는 페르시아군을 압도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한 반면,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사살되는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전투이며, 그리스의 용사 필리포데스(혹은 에우클레스)가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 승리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를 전하고 절명하였다는 고사가 있는데, 마라톤 경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실은 이와 같은 마라톤경기에 얽힌 이야기 자체가 믿을 것은 못 된다. 페르시아전쟁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자세하게 다룬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 B. C. 484?-B. C. 452?)의 『역사』라는 책의 어느 구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설이 마라톤전투가 끝난 지 600년이 지난 기원후 2세기의 작가 루키아노스(Lukianos, 120?-180?)에 의해 처음 언급된 것도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상상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영웅을 만들어낸다. 기원 후 2세기, 옛 그리스의 영광이 사라진 뒤에 그리스 민중은 장군들이나 귀족이 아닌 평범한 한 병사를 자신들의 영웅으로 갖기를 열렬히 바랐기에 이런 영웅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민중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항상 진실이다. 그러기에 마라톤에 얽힌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관계없이 영원한 진실이다.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이란은 자국의 패전을 기념하기 위해 생긴 마라톤경주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스포츠와 정치가 그 오랜 세월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가 될 것이다(송병록, 2006).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 행하여 졌던 올림피아경기에 마라톤이란 종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동규(1999)는 “달리기와 관련된 종목은 약 200m를 달리는 스타디움(stadium)경기와 스타디움을 왕복하는 디아울로스(Diaulos)경기 그리고 약 24배의 스타디온 거리를 달리는 돌리코스(Dolichos)가 전부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42.195km를 뛰는 마라톤경주와 같이 먼 거리를 뛰는 경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2. 마라톤 경기기록의 변천

마라톤경기가 가장 주목받는 것은 첫째가 올림픽대회이다. 다음은 보스턴 마라톤대회이다. 이 경기는 189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1945년부터는 주로 캐나다·일본·핀란드 선수들이 우승을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기타의 마라톤 대회는 뉴욕 마라톤대회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메리카 마라톤대회 등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회이다. 그러나 이 거리는 폴코스에서만 사용되며, 21.0975km, 10km, 5km 등의 거리가 짧은 단축형 마라톤대회도 있고 폴코스보다 더 긴 60km, 100km 등의 일명 울트라마라톤대회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마라톤이라고 하면 이러한 폴코스마라톤을 말하지만 경기의 형태도 다양화되어, 21.0975km를 뛰는 하프마라톤, 10km 단축마라톤, 그리고 5km 건강마라톤, 울트라마라톤으로 구분하고 있다(황영조, 2004).”

마스터즈 마라토너(masters marathoner)는 중년이나 고령의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을 꾀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 마스터즈 육상은 남자 35세, 여자 30세 이상을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5세 단위별로 연령별 경기를 실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마스터즈라 칭한다

(www.marathon.pe.kr). 그리고 울트라마라톤(ultra marathon)은 마라톤의 풀코스는 42.195km인데, 이보다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을 통틀어 울트라 마라톤이라 한다. 50km의 짧은 마라톤에서 4,700km의 최장거리 마라톤거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보통 주어진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가를 견주는 시간주(時間走)와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비교하는 거리주(距離走)로 구분한다(www.100.naver.com). 국내에서는 50km, 100km, 200km 등의 대회가 있고, 강화에서 강릉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311km 대회와 태종대에서 임진각까지 종단하는 550km, 땅끝 마을 해남에서부터 고성까지 종단하는 643km 등의 종목이 있다. 울트라 마라톤은 거리를 목표로 뛰는 사람들의 꿈(dream)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하프마라톤(half marathon)은 42.195km의 반인 21.0975km를 달리는 경기를 말한다. 본래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5km를 달리는 풀(full)코스 마라톤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20km, 10km, 5km 대회를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 쓰이는 단축마라톤이라는 것과 달리 그냥 레이스라고 한다. 따라서 5~10km 로드레이스(road race)를 마라톤이라고 일컫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하프마라톤에는 마라톤의 반이라는 의미로 마라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www.marathon.pe.kr).

현재, 마라톤 풀코스에서 세계최고기록은 2시간 3분 38초로 케냐의 마카우(P, Makau)이다. 베를린에서 2011년 9월 25일에 새롭게 갱신한 것이다. 여자는 영국의 래드클리프(P, Radcliffe)이며 2시간 15분 25초로써 런던에서 2003년 4월 13일 세운 기록이다. 한국의 현재 최고기록은 2000년 도쿄마라톤대회에서 이봉주가 세운 2시간 7분 20초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1896년 제1회 올림픽을 시작으로 수많은 마라톤선수들이 참가하였고 또 경

기의 우승과 함께 그 기록들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남자와 여자 마라톤의 세계 랭킹 50위까지의 기록은 <부록 1>, <부록 2>와 같다.

1) 세계 남자 마라톤 기록의 변천

(1) 2시간 20분대 이상

세계 최초의 마라톤 기록은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서 델리기아니스(D, Deligianis)가 세운 3시간 03분 05초이다. 마라톤 기록은 이후 급속도로 단축돼 30년도 채 안된 1925년 미첼슨(A, Michelson)이 2시간 29분 02초의 기록으로 2시간 30분벽을 깨는데 성공했다.

처음으로 2시간대의 기록이 나온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이었다. 7월 24일의 무더운 날씨에 당시 미국의 헤이스(J, Hayes) 선수가 2시간 55분 19초의 기록을 수립하며, 마라톤 2시간대의 길을 열었다. 이후 1909년 2월 12일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미국의 클라크(J, Clark) 선수가 2시간 46분 53초의 기록으로 2시간 40분대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1913년 5월 31일 스탠포드 브리지(Stamford Bridge) 마라톤에서 영국의 베렛(H, Barrett) 선수가 2시간 38분 17초로 2시간 30분대 기록을 주파하였으며, 1920년 8월 22일 안트베르펜(Antwerpen) 마라톤 대회에서 핀란드의 콜러매넨(J, Kolehmainen) 선수가 2시간 32분 36초를 기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다가, 이후 5년간 새로운 기록이 달성되지 못하게 된다.

포트 체스터(Port Chester)에서 대회가 개최된 1925년 10월 12일 미국의 미첼슨(A, Michelson) 선수가 처음으로 2시간 20분대인 2시간 29분 02초를 기록하였지만, 다시 도쿄 마라톤이 개최되는 1935년까지 약 10년간 기록향상을 보

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1935년 도쿄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6분 42초라는 당시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 이후 1947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당시 기록이 2시간 25분 39초였다.

(2) 2시간 10분대

2시간 10분대의 기록을 처음 기록한 선수는 영국의 피터스(J. Peters) 선수이다. 피터스 선수는 1952년 6월 14일 2시간 20분 04초를 기록한 뒤, 바로 다음 해인 1953년 6월 13일에는 처음으로 2시간 10대의 기록인 2시간 18분 41초를 기록하였다. 이후 2시간 17분대의 기록 또한 피터스 선수가 가장 먼저 갱신하였는데, 이는 1954년 6월 26일의 일이다. 치즈윅(Chiswick)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한 피터스 선수는 2시간 17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1958년 8월 24일 스톡홀름의 대회에서는 당시 소련의 포포프(S. Popov) 선수가 2시간 15분 17초를 기록하며 2시간 15분대에 발을 디었으며, 2년 뒤인 1960년 9월 10일에도 에티오피아의 비킬라(A. Bikila) 선수가 포포프 선수와 동일한 2시간 15분 17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2시간 14분대의 기록은 미국의 에데렌(L. Edelen) 선수가 가장 먼저 달성했다. 에데렌 선수는 1963년 6월 15일 치즈윅 대회에서 2시간 14분 2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년 뒤 개최된 치즈윅 대회에서는 2시간 13분대의 벽이 무너졌다. 주인공은 영국의 히틀리(B. Heatley)인데, 1964년 6월 13일에 개최된 치즈윅 대회에서 2시간 13분 55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같은 해 도쿄 올림픽에서는 에피오피아의 비킬라 선수가 2시간 12분대인 2시간 12분 12초의 기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5년 6월 12일 치즈윅 대회에서 일본의 시게마추(M,

Shigematsu) 선수가 2시간 12분 00초를 기록하며 2시간 11분대의 기록을 눈앞에 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다음 세계 기록은 바로 2시간 9분대의 기록이 탄생하게 된다.

(3) 2시간 10분대 이하

1967년 12월 3일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서 호주의 클레이튼(D, Clayton) 선수가 처음으로 2시간 9분대의 기록을 갱신한 이후로 점차 기록향상이 더더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 9월28일 열린 2003 베를린마라톤 남자 풀코스에서 케냐의 터гат(P, Tergat)과 코리르(S, Korir)가 각각 2시간 04분 55초와 2시간 04분 56초로 ‘2시간 5분벽’을 깨고 남자마라톤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2시간 6분벽이 미국의 하누치(K, Khannouchi)에 의해 1999년 10월 시카고마라톤(2시간 05분 42초)에서 깨질 때만 해도 2시간 5분벽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4년도 채 안 돼 터가이 2시간 4분대에 진입한 것은 ‘한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http://marathon.donga.com>).

현재의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마카우(P, Makau) 선수가 2011년 9월 25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달성한 2시간 3분 38초이다. 이는 2008년 9월 28일 에티오피아의 게브르셀라시에(H, Gebrselassie) 선수가 달성한 전 세계 기록인 2시간 3분 59초에서 21초를 앞당긴 기록이다. 게브르셀라시에 선수는 그 외에도 각종 대회에서 세계기록 및 대회기록을 새로이 작성한 선수로서 케냐의 마카우 선수가 등장하지 전까지 세계 마라톤을 이끌어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랭킹 1위부터 10위권의 기록들은 대부분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송형석, 2006).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란 다른 지역에 사는 선수들에 비해 산소운반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위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보아도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세계마라톤은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부터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세계마라톤은 정체기를 거쳤다. 1967년 12월 3일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2시간 9분대의 기록이 달성되었는데, 그 때부터 한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였다. 1970년 7월 23일 제9회 영연방 경기대회 2시간 9분 28초, 1974년 1월 31일 제10회 영연방 경기대회 2시간 9분 12초, 1978년 2월 5일 벳푸-오이타 마라톤 대회 2시간 9분 6초, 1980년 4월 26일 암스테르담 마라톤 대회 2시간 9분 1초, 1981년 12월 6일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 2시간 8분 18초, 1984년 10월 21일 시카고 마라톤 대회 2시간 8분 5초, 1985년 4월 20일 로테르담 마라톤 대회 2시간 7분 12초를 달성하였다.

세계 마라톤은 1980년대 중반까지 2시간8분대에 머물렀으나 1985년 포르투갈의 로페스(C, Lopes)가 2시간 07분 12초, 1988년 4월 17일 에티오피아의 딘사모(B, Dinsamo) 선수가 로테르담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2시간 6분대인 2시간 6분 50초를 기록하며 ‘6분 벽’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 9월 20일 브라질의 코스타(R, Costa)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45초를 단축시킨 2시간 6분 5초라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1년 뒤인 1999년 10월 24일 하누치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2시간 5분대의 기록인 2시간 5분 42초를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였다. 하누치의

마라톤 기록은 에티오피아의 딘사모가 세운 2시간 6분의 벽을 11년 만에 경신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1세기 최초의 기록 또한 하누치 선수의 몫이었다. 하누치 선수는 2002년 4월 14일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종전 자신의 기록에서 4초를 앞당긴 2시간 5분 38초를 기록하였다. 그 뒤 지금까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각각 두 번씩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지금까지 발전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세계 여자 마라톤 기록의 변천

(1) 3시간대

마라톤을 처음 완주한 여성은 로비티(S, Rovithi)이다. 그녀는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1896년 3월 그리스의 마라톤과 아테네를 잇는 마라톤코스를 완주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열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멜포메네(Melpomene)란 여성이 조직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 선수들의 뒤를 따라 풀코스를 달렸다. 멜포메네는 조직위의 저지로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없어 경기장 밖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레이스를 마쳤다. 기록은 4시간 30분. 정식 선수로 참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멜포메네는 올림픽에서 레이스를 펼친 첫 여성이었다.

이후 1984년 LA올림픽에서 여자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때까지 여성 마라토너들은 '성차별'하는 남성들과 줄기차게 맞서왔다. 여자마라톤 첫 세계 최고기록은 1926년 10월3일 영국의 한 마라톤대회에서 피어시(V, Piercy)가 작성한 3시간 40분 22초이다. 이 기록은 1963년 12월 16일 미국의 랩퍼(M, Lapper)가 3시간37분07초를 세울 때까지 37년간 세계 최고기록으로 남았다. 이는 피어시의 기록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올림픽은 물론 보스턴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마라톤대회에 여자들이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럴수록 여성 마라토너들의 대회 참가 욕구는 더욱 커졌고 반발도 거세어졌다. 1966년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한 깁(R, Gibb)이란 여성은 스타트라인 부근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출발총성이 울린 뒤 따라 뛰어 3시간 21분 25초(비공식)를 기록했다. 깁은 남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악명 높은 보스턴코스를 뚫 첫 여성이었다. 깁의 이 같은 '모험'은 그가 참가신청서를 냈을 때 대회 조직위가 '여자들은 몸이 약해 마라톤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깁은 이듬해 또 같은 방식으로 뛰었는데 결국 조직위의 단속에 걸려 완주할 수 없었다(<http://marathon.donga.com>).

(2) 2시간 30분대 이상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의 여자 800m 경기는 당시 처음으로 올림픽에 도입된 여자 중거리 달리기 종목이었다. 하지만 경기 후 선수들이 계속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여자 선수들에게는 중장거리 달리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손현, 2011). 당시 여자 800m 출전 선수들은 대부분이 단거리 선수를 겸하고 있었으며, 중거리 달리기를 위한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고 시합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여자 800m는 올림픽에서 사라지고, 약 30년 후인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여자 1,500m가 도입되고, 1984년 LA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역사상 올림픽 여자마라톤 첫 월계관은 미국의 베노이트(J, Benoit)가 2시간 24분 52초를 기록하며 차지했다.

이와 같이 비록 유명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지만 여자 마라토너들의 기록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갔다. 1971년 8월 호주의 빔스(A, Beames)가 2시간 46분

30초를 기록, 최초로 '3시간 벽'을 무너뜨렸다. 이에 자극 받은 보스턴마라톤 조직위는 1972년부터 여자선수들을 남자선수들과 함께 뛰도록 허용했다. 1973년 10월28일엔 서독 발트니엘(Waldniel)에서 여자들만의 마라톤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후 지속적인 기록향상을 가져오다 1975년 10월 12일 유진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미국의 한센(J, Hansen) 선수가 2시간 30분대인 2시간 38분 19초의 기록을 작성하였다. 거의 매년 약 1분씩의 기록향상을 하다가 1978년 10월 22일 뉴욕 대회에서 노르웨이의 바이츠(G, Waitz) 선수가 2시간 32분 30초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 2시간 30분대의 최고 기록이다. 바이츠 선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기록을 갱신하였으며, 그 횟수는 무려 4회에 달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2시간 20분대의 기록을 달성한 선수 또한 바이츠 선수이다.

(3) 2시간 30분대 이하

1979년 10월 뉴욕마라톤에선 노르웨이의 바이츠가 2시간 27분 33초로 1년 전 자신이 수립했던 세계기록(2시간32분30초)를 경신하며 '2시간 30분 벽'마저 깨버렸다. 1964년 영국의 그리그(D, Grieg)가 3시간 27분 45초를 기록한 뒤 15년 만에 1시간 넘게 기록이 단축된 것이다(<http://marathon.donga.com>).

1983년 4월 17일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는 노르웨이의 바이츠 선수가 처음으로 2시간 25분대의 기록인 2시간 25분 28초를 기록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인 1983년 4월 18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미국의 베토이트 선수가 2시간 22분 43초를 기록하였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던 해인 1984년 5월 13일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는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안센(I, Kristiansen) 선수가 2시간 24분 26초를 기록

하였으며, 크리스티안센 선수 바로 다음해인 1985년 4월 21일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21분 6초를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과 세계기록을 단축시켰다. 남자 마라톤과 유사하게 여자 마라톤에서도 정체가 있었는데, 1985년 이후 약 13년 뒤인 1998년까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98년 4월 19일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케냐의 로우페(T, Loroupe) 선수가 2시간 20분 47초라는 13년 만의 세계기록을 달성하였다. 로우페 선수는 1년 뒤인 1999년 9월 26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0분 43초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세계기록을 작성하였다.

21세기 최초의 세계기록은 2001년 9월 30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의 다카하시(N, Takahashi) 선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카하시 선수는 여자 선수 최초의 2시간 10분의 기록인 2시간 19분 46초의 기록을 갱신했으며, 같은 해인 2001년 10월 7일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는 케냐의 은데레바(C, Ndereba) 선수가 2시간 18분 47초의 기록으로 다카하시 선수의 기록을 일주일 만에 갱신했다. 그 뒤 2002년 10월 13일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영국의 래드클리프(P, Radcliffe) 선수가 2시간 17분 18초를 기록하였으며, 이듬해인 2003년 4월 13일 래드클리프 선수가 다시 한 번 2시간 15분 25초의 기록을 작성하며 지금까지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남자 마라톤과는 달리 여자 마라톤 선수 중에서는 아프리카계 선수들의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남자 마라톤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반면에, 여자 마라톤은 2003년 이후로 기록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남자부에서 1908년 헤이스가 2시간 55분 19초를 기록해 2002년 4월14일 미국의 하누치가 2시간 5분 38초로 지난 95년간 약 50분을 단축한 데 비해 여자는 1926년부터 2002년까지 76년간 1시간 23분 04초나 앞당겼

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10분 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ttp://marathon.donga.com>).

Ⅲ. 한국 마라톤경기의 형성과정

1. 한국 마라톤경기의 도입과정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정치와 문화적 탄압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 많은 스포츠문화도 침체기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유입된 외래스포츠도 일본인에 의해 탄압되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료된다. 간혹 일본인들과 스포츠교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경기는 여러 곳에 기술되어 있지만 어려운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과 이어지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준비와 출전으로 징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은 스포츠는 허영과 사치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당시 한국의 스포츠는 일본 유학생들의 국내 귀국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 스포츠가 유입되고 또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육상경기의 초창기는 1896년 5월 2일 동소문 밖 삼선평(현 삼선교)에서 외국어 학교의 분교인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W, Hutchison)과 헬리팩스(T, Hallifax)의 지도하에 거행된 '화류회(花柳會)'로 부터이다. 이는 협소한 교사를 떠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회를 겸하여 심신 단련과 호연용매의 기상을 배양하기 위한 영어 학교 학생의 교외 모임으로 한국 체육운동 초창기의 발판이 되었고, 학교운동회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나현성, 1985). 1898년 5월 28일 외국인 학교 6개 분교의 연합 대운동회에서는 순수 육상경기로만 거행되기도 하였다(박종진, 1999). 또한 1906년에 동문 밖 영도사에서 한국 최초의

조직적 체육기구인 대한 체육구락부의 운동회에서 육상경기가 열렸으며 1912년에 지금의 선린 전공 자리인 청파에서는 당시 황태자인 이태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성 시내 8개 중학교 연합운동회가 있었으나 그때는 거리 및 시간측정 등이 확실치 못했다.

1919년 2월 18일 일본인들의 손에 조선체육협회가 발족되고, 1920년 5월 16일에는 조선체육회가 발족되어 용산 신연병장에서 거행된 협회주최 육상경기대회에서 경성 일주(10마일) 마라톤 대회가 거행되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공식 마라톤 경기가 되었고, 최홍석 선수가 우승하였다. 이어 1923년 6월 3일 경성 일보사 경인간 역전 경기대회가 열려 배재고보 팀이 일본의 여러 팀을 물리치고 우승하였다. 이해 7월 4일에 조선체육회에서는 육상경기 계(系)가 만들어짐으로서 육상 기술 향상과 보급 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열렸고, 1925년 제2회 전조선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는 마라톤경기의 코스가 26M 385yd로 시행하면서 정규 코스가 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마라톤은 공식대회의 참가와 공식코스 거리가 등장하면서 마라톤이 명실공히 경기화되었으며, 각종 육상 경기대회 및 종합 경기대회와 국제 경기대회에서 좋은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마라톤은 손기정과 황영조의 올림픽 우승으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경기종목으로 부각되었다.

2.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개양상

마라톤은 제1회 근대올림픽대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올림픽의 대표적인 경기종목이다. 또한 4만2천195m라는 긴 거리를 쉽 없이 오랜

시간을 뚫다는 특징이 있다. 즉 마라톤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남성 엘리트선수들의 경기였으며,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여서 ‘올림픽의 꽃’으로 비유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 여성들도 마라톤에 참여하여 완주함으로써 남녀 모두 참여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다음은 한국 마라톤의 역사, 즉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성과를 5단계로 나누어 탐색하기로 한다. 역사의 한 분야인 체육사의 연구에서 보면 타당성 있는 시대 구분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대구분이란 역사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한 역사가들의 임의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마음속의 개념일 뿐이다(차하순, 1981).

시대구분을 하는 이유는 부단한 과거의 시간적 흐름을 구획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 이해는 명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황옥철, 1998). 그러나 시대구분이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며, 너무 세분화되지 말고, 반드시 시간적 차원에서만 고려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타당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육상경기 변천사의 시대구분의 기준에 있어서 스포츠를 둘러싼 문화적 제 현상 속의 체육, 스포츠사의 특수성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밝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사의 방식과 체육사의 특수성을 절충한 복합형방식으로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개양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세분화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들은 대한육상경기연맹(<http://www.kaaf.or.kr>), IOC 홈페이지(<http://www.olympic.org>), (보스턴마라톤대회 <http://www.bostonmarathon.org>) 등을 근간으로 하였다.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개양상에 대한 시대구분의 기준은 마라톤경기를 둘러

싼 제반 문제들을 포함시켜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김세기(2006)는 한국 마라톤경기의 역사에 대한 시대구분을 총 5단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독립이전 시기, 2단계는 독립이후 시기, 3단계는 3·4공화국 시기, 4단계는 5·6공화국 시기, 5단계는 문민·국민정부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마라톤경기의 전개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위의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즉 첫째, 일제강점기에 한국 마라톤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기에 이 시기를 첫 번째 단계인 ‘한국 마라톤경기의 효시’로 선정하였다. 둘째, 미군정기-6·25민족전쟁기에서는 한국 마라톤이 많은 발전과 기록향상을 도모하였기에 ‘한국 마라톤경기의 부흥기’로 명명하였다. 셋째, 1960년-1980년대는 경제성장기이지만 경제성장에 집중하다보니 국내대회 개최가 줄어들고, 선수단 파견 및 지도자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기록이 저조했던 침체기를 맞이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마라톤경기의 침체기’로 선정하였다. 넷째, 세계화 시대로서 한국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기록함으로써 한국 마라톤이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로서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환기’로 명명하였다. 다섯째, 2010년 이후부터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마라톤선수들이 모두 은퇴한 뒤 구심점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판단되어 ‘한국 마라톤경기의 방황기’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가시적인 시대상황과 한국 마라톤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한국 마라톤경기의 효시(일제강점기: 1920-1930년대)

이 시기는 한국 육상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약진

해 나가는 시기로 마라톤 경기가 각종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정규 풀코스에서 최초로 공인기록이 작성된 시기이다. 당시 한국은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체육단체 주최의 대회뿐만 아니라 일본인 체육단체의 대회에도 한국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일본인을 압도하고 우승하여 한민족의 탁월한 우수성을 보이게 됨에 따라 일반인의 육상경기에 대한 큰 관심과 민족의식의 고양은 물론, 국내 체육사상이 보다 강화되어 국제무대에 진출할 터전을 닦기 시작한 시기이다(김세호, 2006).

1920년대는 조선체육회 주최의 첫 육상대회인 제1회 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원래 마라톤경기는 1919년 2월 18일 일본이 조선체육협회를 조직하고, 이 해에 육상경기 종목에 마라톤경기를 실시하려 했지만 3·1운동 때문에 다음 해인 1920년에 개최된 것으로 짐작된다. 제1회 조선육상경기대회는 서울은 물론 함흥, 평양, 밀양, 수원 등지에서 상당수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Track과 Field 경기를 합쳐 15개 종목의 근대적 종목을 갖추게 되었다(김세호, 2006).

같은 시기 한국의 첫 마라토너로서 임학규, 최홍석, 마봉옥, 이성근, 김은배, 권태하 등의 선수들이 있었다. 특히 최홍석은 조선체육회 주최의 제1회 육상경기대회(1920년 5월 16일 조선체육회; 1919년 조선체육협회 발족) 25마일(경성 일주마라톤대회; 거리는 용산에서 신 연병장, 지금 육군본부 위치까지의 약 40km)의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따라서 최홍석은 육상경기대회 중 마라톤종목에 참가하여 우승한 한국 최초의 우승자가 된다. 또한 마봉옥은 1927년 10월 14일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개최된 공식적인 단일종목 마라톤 경기에서 3시간 29분 37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한국의 첫 마라톤 단일종목 경기의 우승자이다(성동진, 윤탁영, 1989). 1930년에는 인력거를 끄는 이성근이 조선신궁체육대회에서 2시간 36분 30초의 기록을 세웠고, 1931년에는 김은배가 2시간 26

분 12초로 당시 비공인 세계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하였다.

한국인으로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1932년 LA올림픽이다. 제10회 LA올림픽대회(1932년)에는 고교생이었던 김은배(6위; 2시간 37분 28초), 권태하(9위; 2시간 42분 52초), 황수을(기권) 등이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는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에 한국민족이 처음으로 출전한 것이었다(박종진, 1999). 이 시대 마라톤에 있어서 최대의 성과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1위; 2시간 29분 19초), 남승룡(3위; 2시간 31분 42초)이 참가하여 손기정이 대회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우승을 한 것이었다. 손기정은 1935년에 베를린 올림픽대회 일본대표 1차 선발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신기록(2시간 26분 14초)을 수립하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는 올림픽신기록(2시간 29분 19초 2)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당시 마라톤에서 2시간 30분대의 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손기정은 이를 깨뜨리는 신기록을 수립하여 세계 마라톤계에 파장을 일으켰으며, 조선사회 전체에 감동과 감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권태하, 김은배, 손기정, 남승룡 등에 의해 마라톤사관학교인 '조선마라손보급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통한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는데, 이 때 양성된 대표적인 인물이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한 서윤복,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등이다. '조선마라손보급회'는 서윤복에게 '마라톤 왕자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잉태하게 하는 계기를 조성한 것이다(심상섭, 조문기, 2012). 이러한 성과들에 의해 한국 마라톤은 여명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

2) 한국 마라톤경기의 부흥기(미군정기-6·25민족전쟁기: 1940-1950년대)

1946년 8월 9일 한국 마라톤의 재건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손기정을 중심으로 한 ‘조선 마라톤 보급회’가 발족하면서 우수선수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947년 4월 19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51회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는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주역인 손기정 감독, 남승용 선수 겸 코치가 선수단을 구성하고 참가하여, 서윤복(1위; 2시간 25분 39초)은 세계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우승을 하여 한국 마라톤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당시 선수단은 한국 마라톤의 수준이 세계최정상임을 거듭 증명한 것이다(임석원, 조문기, 2009a: 150).” 이 시기 한국은 정부수립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마라톤에 집착한 손기정 감독이 미군정과 미국에 거주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개척해 나갔다.

1950년대는 한국 마라톤의 황금시대로 불릴 만큼 좋은 경기 성과를 거두었다.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 함기용(1위; 2시간 32분 39초), 송길윤(2위; 2시간 35분 58초), 최윤칠(3위; 2시간 39분 58초)이 참가하여 금·은·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특히 송길윤은 서윤복이 1949년 모교인 숭문에서 지도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민 후 발굴하여 육성한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다(임석원, 조문기, 2009b: 68). 그리고 서윤복은 1957년 제6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한국선수단 감독을 맡아 임종우(3위; 2시간 24분 55초), 한승철(5위; 2시간 28분 18초)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종우의 기록은 1935년 손기정이 세운 2시간 25분 14초의 한국최고기록을 22년 만에 갱신한 것이어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이와 함께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에서는 최윤칠이 4위(2시간 26분 36초)를 하였고, 1956년 제16회 멜

버른올림픽대회에서는 이창훈이 4위(2시간 28분 45초)를 기록하였다. 또 1958년 제3회 도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이창훈이 2시 22분 55초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1950년대는 한국 마라톤의 황금시대를 구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마라톤경기의 침체기(경제성장기: 1960-1980년대)

1972년 제20회 뮌헨 올림픽대회,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그리고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는 마라톤 선수를 출전시키지도 못하는 한국 마라톤 최악의 대회였다. 한국 마라톤은 내적으로 연간 개최되는 대회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국제대회참가와 해외 전지훈련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에는 1972년 뮌헨올림픽대회 및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 선수 파견조차 하지 못한 마라톤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최충식, 1988).

마라톤선수는 물론 지도자도 고갈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한국 마라톤의 침체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한국의 마라토너들이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긴 하였지만 기록의 측면에서는 저조한 시기였다. 1982년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양곤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 시기에 위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에서는 이창훈(20위), 이상철(47위), 김연범(기권), 송삼섭(기권),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이상훈(11위), 김연범(16위), 주형결(50위), 1968년 제19회 멕시코올림픽대회에서는 이명정(29위), 김봉래(30위), 이상훈(46위), 1984년 제23회 LA올림픽대회에서는 이홍렬(37위),

채홍락(48위), 김원식(58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김원탁(18위), 유재성(31위) 등이 참가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였다. 이 시기에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1966년 제70회 대회에는 김복래(10위)와 류명중(14위)이 참가하였고, 1973년 제77회 대회에는 김차환(35위)이 참가하였지만 역시 성적이 저조하였다.

1974년 문홍주 선수가 2시간 16분 15초의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이후 10년간 한국마라톤은 침묵과 정체의 휴면기나 다름없었다. 한국기록 경신은 커녕 올림픽에서도 기록 저조 현상이 계속되어 마라톤을 비롯한 나머지 육상 종목들도 대회 참가가 어려웠다. 이러한 낙후된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기하고자 1979년 '한국 마라톤 후원회'가 발족되었다. 후원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마라톤 장학금 지급, 둘째,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마라톤 선수의 훈련 및 기술과 체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코치의 초청과 국내 코치 및 선수들의 전지훈련의 주선과 지원, 셋째, 기타 한국 마라톤 발전에 기여되는 제반사항들에 지원함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리하여 한국 마라톤의 부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도래되기 시작하였다.

4) 한국 마라톤경기의 전환기(세계화시대: 1990-2000년대)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황영조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의 우승자 손기정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다시 우승(2시간 13분 23초)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국 마라톤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 후 그는 1994년 제98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4위(2시간 8분 9초), 같은 해 제12회 히로시마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 1995년 제99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4

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 마라톤경기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봉주는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올림픽대회에서 준우승(2시간 12분 39초)을 하였다. 올림픽에서의 은메달은 한국 마라톤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이봉주는 2000년 2월 13일 도쿄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위(2시간 7분 20초)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한국 신기록으로 2012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김재룡은 1993년 제97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2위(2시간 9분 43초), 1995년 제99회 대회에서 7위(2시간 12분 15초)를 기록하여 한국 마라톤의 맥을 이어 주었다. 또한 김원탁은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아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마라톤왕국의 명맥을 지켰다. 이러한 성과에 의해 이 시기는 한국 마라톤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5) 한국 마라톤경기의 방황기(2010-현재)

2000년대에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나면서 황영조와 이봉주, 두 사람이 은퇴하면서 한국 마라톤은 다시 침체기에 처해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설과 규모로 개최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육상 전 종목 메달 부재 상태로써 이는 역대 3번째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개최국이 된다. 이것이 현재 한국마라톤과 육상계의 현실로서 이러한 방황기의 탈피가 마라톤을 비롯한 한국 육상계의 당면과제이다.

3. 한국 마라톤경기의 기록사

문화의 진보와 창조성은 인간의 고귀한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세호,

2006). 문화의 진보와 창조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과거의 경험을 반성하고 비판함으로써 결점과 과오를 느끼게 되며,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다 새로운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류는 교육이라는 틀을 만들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이재원, 2005).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영역과 제도 내에서의 체육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체육의 가치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의 교육적 가치란 인간의 행위 질서를 배우는데 있으며, 그 방도는 집단기술을 연습시키고 집단사고력을 기르며 단련시켜서 사회생활의 조화와 행동의 균형을 이룩하는데 그 의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윤명희, 김문규, 2001).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제도를 통해 목적인 바를 달성하고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심리중의 하나일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세월과 함께 해온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의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경쟁을 통해 나타난 것은 수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역사적인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줄 것이고 그것은 인류발달사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록변천과정을 통해 한국 마라톤경기의 민족사적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경기사적 접근의 시도이다.

최초의 한국 마라톤대회는 1920년 5월 16일 조선체육협회 주최 육상대회였던 경성일주코스에서 치룬 마라톤경기이다. 당시 경기는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1927년 10월 19일에 실시된 제3회 조선신궁육상대회 역시 정규 풀코스마라톤 경기대회가 아니다. 즉 동대문운동장에서 안양역을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써 마라톤의 거리 개념이 없었던 대회였다. 그

러나 이 대회는 오늘날 전국체육대회의 마라톤종목의 전신이 되었다. 1931년에 이르러 동아일보사가 마라톤대회를 창설하였고, 1964년 제35회 대회에서부터 42.195Km라는 정규코스의 정상적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동아일보 주최의 국제대회는 1994년 제65회 대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대회는 외국의 우수한 마라톤 선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마라톤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사는 1946년 10월 27일에 손기정의 올림픽재패 기념마라톤 대회를 만들었으며 1994년 제49회 마라톤 대회부터는 국제경기대회로 탈바꿈하였다.

이 밖에 조선체육회 주최 제1회 경성-인천 간 역전 마라톤 대회가 6소 구간으로 나누어 1923년에 개최되었으며 1954년에 경부(서울-부산)역전 대회가 창설되었고, 1970년에는 경호(서울-목포)역전 경주대회와 진주-부산간 고교 일반 역전 마라톤대회가 거행되어 마라톤 경기의 신인 발굴 및 우수선수들이 배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교통문화의 발달로 경기 주로인 도로의 차량증가로 인해 경기 중 대회 진행에 있어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두 대회는 중단된다. 1980년에 들어 매한 고교 마라톤대회, 코오롱 고교구간 마라톤 대회가 열려 마라톤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이 대회에서 배출된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및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두 마라톤 대회는 3월과 11월에 각각 개최되어 동아국제마라톤대회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라면 조선일보국제마라톤대회는 한 해를 정리하는 대회가 되는 셈이다. 한국 마라톤에 있어서 전국체육대회 마라톤경기와 동아일보마라톤대회 그리고 조선일보 국제마라톤 대회는 한국의 마라톤을 대표하는 경기대회로서 한국에서 주최하는 3대 마라톤경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스터즈 마라톤대회의 첫 공식적인 대회는 1994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제65회 동아마라톤대회였다. 당시 대회장소를 춘천에서 경주로 옮긴 주최 측은 이 대회부터 국제 규모로 대회를 승격하여 당시 93년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마크 플라체스를 비롯한 베를린마라톤 우승자 호릴리야와 등 세계적인 해외선수들을 대거초청, 12개국 9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또한 마스터스부문을 신설하여 1백 74명의 마스터즈 마라토너가 참가하였다. 이로써 동아마라톤 대회는 첫 번째 마스터즈 대회의 개최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동시에 세계 유수의 마라톤 이벤트로 발돋움 하게 된다(<http://marathon.donga.com>).

1995년 10월 조선일보마라톤대회도 ‘조선일보춘천국제마라톤대회’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동아일보마라톤대회와 한국 마라톤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만의 경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세계 유명 마라토너들을 춘천으로 집결시켰다. 또한 마라톤발전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996년 일반 참가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또 다른 탈바꿈을 시도한다. 춘천 시도 국제마라톤 개최를 통한 춘천시의 위상을 고양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춘천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에서 17km 지점에 있는 오르막 10도의 급경사길 80여 미터를 8여억 원을 들여 5도 정도로 깎아내리는 공사를 하였다(<http://marathon.chosun.com>). 이러한 춘천시의 노력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와 결합하면서 현재 많은 마라토너들이 애호하는 ‘마라톤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이재희, 2004).

1994년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174여명의 마스터즈 마라토너가 참가한 동아마라톤대회는 풀코스만으로 제한한 2003년 74회 대회에서는 참가자수가 7,913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대회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완주자는 남성이 6,972명, 여성이 247명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마라톤 대회에서도 1996년 첫 마스터즈 마라토너에게 대회를 개방한 후 97년 5,346명의 참가자에서 2004년 풀코스 참여자만 20,122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마스터즈 마라톤이 단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양적 발전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마라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언론사의 노력 끝에 한국 마라톤대회는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나 뉴욕시민마라톤대회, 베를린국제마라톤대회 등 해외 유명한 마라톤대회들과 같이 엘리트 선수들이 경쟁하는 장에서 대중도 함께 하는 이벤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마라톤대회는 더 이상 일반인들은 구경만 하고 엘리트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중마라톤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으며, 마라톤대회가 하나의 축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희, 2004).

한국 마라톤의 기록사는 다음과 같이 시대적으로 분류하였다.

1) 1945년 이전

이 시기는 한국 육상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던 시기로서, 마라톤 경기가 각종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정규 코스에서 최소로 공인기록이 작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최초의 한국 마라톤 공식기록은 1927년 10월 15일 조선 신궁대회에 참가한 마봉옥 선수의 3시간 29분 37초의 기록이다. 마봉옥 선수는 한해 뒤인 1928년 10월 13일에 개최된 조선 신궁대회에서 자신의 종전 기록을 대폭 갱신한 2시간대의 기록인

2시간 57분 34를 기록하였다. 1930년 10월 11일에 개최된 조선 신궁대회에서는 이성근 선수가 2시간 36분 50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1931년 10월 10일에 개최된 조선 신궁대회에서는 김은배 선수가 2시간 26분 12초로 세계기록을 돌파하여 정규 마라톤 실시 후 5년 만에 1시간여 단축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후 1935년 4월 27일 조선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6분 41초로 우승을 하였으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2시간 29분 19초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남승룡 선수는 2시간 31분 42초로 3위로 골인하였다. 올림픽 마라톤 출전은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이전에 벌써 이루어졌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한 김은배 선수와 권태하 선수는 2시간 37분 28초와 2시간 42분 52초를 기록함으로써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한 전례가 있었다.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손기정 선수의 기록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손기정 선수는 3년 동안 비공인 세계 기록을 3번이나 갱신할 만큼 우수한 기량을 지니고 있었다. 1933년 10월의 조선 신궁대회에서 2시간 29분 34초, 1935년 3월 동경 단일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6분 14초, 1935년 4월 경성 제1회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5분 14초를 기록하였으며,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또한 2위를 차지하였다. 최종 선발전에서는 남승룡 선수가 2시간 36분 5초로 1위를 차지하였고, 손기정 선수는 2시간 38분 2초를 기록하며 대표로 선발되었다.

베를린 올림픽 이후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노골적인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체육협회가 해체되고, 육상경기 또한 수년간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마라톤 경기 역시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1946년-1960년 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인 9월 23일 조선육상경기연맹이 조직되고, 1년 뒤인 1946년 8월 9일 권태하, 김은배,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이 뜻을 모아 조선 마라톤 보급회라는 조직을 발족시켰다. 조선 마라톤 보급회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 참가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첫 번째 참가기록은 1947년 4월 19일 손기정 감독이 선수단을 구성해 참가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2시간 25분 39초라는 당시 세계 기록을 갱신하며 우승하였다. 이 때 함께 참가한 남승룡 선수는 2시간 48분 40초를 기록하며 12위로 골인하였다. 이 대회는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대회이기도 하다. 1950년 4월 19일에 개최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손기정 감독이 선수단을 인솔하였는데, 함기용 선수가 2시간 32분 39초로 우승, 송길윤 선수는 2시간 35분 58초로 2위, 최윤칠 선수는 2시간 39분 45초로 한국 선수가 1, 2, 3위 모두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1957년 4월 19일에 개최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는 서윤복이 감독, 최윤칠이 코치로 선수단을 이끌었는데, 임종우 선수가 2시간 24분 55초로 3위, 한승철 선수가 2시간 28분 18초로 5위를 차지하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이 세운 2시간 25분 19초의 최고 기록을 35년 만에 경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수권대회에서 계속 좋은 기록을 갱신하는 것과는 달리 올림픽에서는 기록과 성적 면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는 총 3명인데, 최윤칠 선수는 기권, 홍종오 선수는 25위, 서윤복 선수는 27위를 기록하였다. 1952년에 개최된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최윤칠 선수가 2시간 26분 36초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최충식 선수는 2

시간 41분 23초의 기록으로 33위에 머물렀다. 최윤칠 선수는 1951년 10월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시간 25분 15초, 1952년 3월 대구에서 개최된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도 2시간 26분 7초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56년 12월 1일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이창훈 선수가 2시간 28분 45초로 4위, 최충식 선수는 2시간 36분 53초로 1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창훈 선수는 2년 뒤인 1958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2시간 32분 55초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임종우 선수는 2시간 46분 14초로 4위를 차지한 것이 아시아 경기 대회에 첫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기록이다. 이창훈은 1959년 9. 28 수복을 기념해 개최되었던 인천-서울간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4분 07초로 한국 기록을 경신하였다.

3) 1961년-1980년 시기

1964년 4월 19일 처음으로 동아일보사에서 개최한 대회가 마라톤 정식 코스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이상훈 선수가 2시간 27분 13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1965년 5월 4일에는 종합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김복래 선수가 2시간 20분 19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2시간 20분의 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1년 뒤인 1966년 3월 13일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9분 7초의 기록으로 우승과 동시에 2시간 20분의 벽을 넘어섰다. 1967년 3월 12일에 열린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유명종 선수가 2시간 19분 44초로 우승을 하였고, 박봉근 선수는 2시간 21분 5초로 2위에 입상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해서 1966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한 한국

마라톤은 이후 약 3년간 기록행진이 멈추었다가 1969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박봉근 선수의 2시간 18분 18초의 기록을 시작으로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 창간 50주년을 맞는 동아일보사의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김차환 선수가 2시간 17분 3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고, 한국 마라톤 기록은 2시간 17분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김차환 선수는 1972년 뮌헨 올림픽 선발전에서 2시간 19분 34초를 기록하였다가, 다음해인 1973년에 2시간 17분 1초의 기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1974년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문홍주 선수가 2시간 16분 15초의 기록으로 국내 최초의 16분대 기록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약 10년간 한국 마라톤 기록은 정체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4) 1981년-현재까지

한동안 정체기에 있던 한국 마라톤은 코오롱 그룹의 이동찬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인 장익룡과 함께 마라톤 발전을 위해 마라톤 연구 장려금 지급제도를 마련하면서부터 급변하였다. 14분대 진입이 5천만원, 9분대 진입은 1억원의 포상 장려금을 책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1982년 3월에 개최된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김종윤 선수가 2시간 16분 58초를 기록하였고, 1983년 3월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최홍락 선수가 2시간 16분 33초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점차 향상되던 기록은 1984년 3월 18일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이홍렬 선수에 의해 15분대가 무너지고, 2시간 14분 59초라는 한국기록을 작성하였다.

1985년에는 13분대 기록에 다시 7천만 원의 포상 장려금이 책정되었는데, 1985년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유재성 선수가 2시간 15분 48초, 1986년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다시 2시간 14분 6초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한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1987년 3월에 개최된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드디어 12분대 진입에 성공하였는데, 이종희 선수가 2시간 12분 21초로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다시 침체의 시기를 거치는 듯 했으나, 1990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김원탁 선수의 우승 이어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김완기 선수가 2시간 11분 2초의 기록을 달성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 마라톤경기는 본격적인 기록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1992년 2월 2일 마이니치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2시간 8분 47초의 기록으로 2위에 입상하였다. 이러한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까지 2시간 13분 23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 뒤 1994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8분 9초의 기록으로 다시 한 번 한국 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는 이봉주 선수가 등장하지 전까지인 4년간 지속된 기록이다. 이봉주 선수는 2000년 2월13일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를 기록하며 현재까지의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최고기록의 1, 2, 4, 6, 7, 8위 또한 이봉주 선수의 기록이다.

4. 한국 마라톤경기의 인물사

한국의 육상경기는 1869년 영국인 교사 허치슨에 의해 처음 선보였다. 그 후 1920년 조선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육상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29년 조선종합육상경기대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육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인으로서 마라톤에 첫 공식기록을 낸 선수는 마봉옥이다. 그는 1927년

조선신궁체육대회에서 3시간29분37초로 우승을 차지해 한국 마라톤 첫 공식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이어 인력거를 끄는 이성근이 1930년 대회에서 2시간 36분 30초로 최고기록을 세웠고, 1931년 김은배는 2시간 26분 12초의 세계 기록(비공식)으로 우승을 차지한다. 한국인으로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1932년 LA올림픽이며, 권태하, 김은배 선수가 그 주인공이었다(신현경, 1996).

권태하는 3개월 사이에 3번이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저력의 사나이로 올림픽에서 9위에 올랐고 김은배는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은 1932년에 이미 2시간 28분 45초로 마라톤코스를 완주했고 800m, 1500m는 물론 5000m와 1만m에서도 여러 번 우승하는 등 중장거리에서 소질을 보였다. 손기정은 1935년에 2시간 25분 14초로 한국 최고기록을 세운 뒤 베를린올림픽에서 한 많은 우승월계관과 청동투구를 받게 된다.

해방 이후엔 서운복이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마라톤 한국의 면면을 이어갔고 1950년 같은 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윤, 최윤철이 1,2,3위를 휩쓸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한국 마라톤은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92년 황영조는 뱃부-오이타마이니치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08분 47초라는 기록으로 한국 마라톤의 염원이었던 2시간 10분벽을 최초로 돌파하며 세계 정상권에 접근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마라톤 역사의 한국 육상·한국마라톤 역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겼으며 더불어 세계 정상의 위치를 차지했다(황영조, 2009).

한국 마라톤의 인물사는 동아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donga.com/>)를 참고하여 경기자의 성적과 성과가 한국 마라톤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마봉옥: 국내 최초의 한국기록 작성

한국마라톤의 기록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27년 10월 15일이다. 조선신궁대회에서 마봉옥이 수립한 3시간29분27초를 기록하며 자신의 한국기록을 30분 이상 앞당겼다. 마봉옥은 이와 함께 3시간 벽을 허문 국내 최초의 선수가 됐다. 마봉옥의 기록이 깨어진 것은 이로부터 2년 뒤인 1930년 10월 양정고보 출신인 이성근이 경성소속으로 조선신궁대회에 나가 2시간36분50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약21분을 앞당겼다.

그러나 이 기록도 1년 뒤 김은배(양정고보)에 의해 10분 이상 단축됐다. 김은배는 1931년 10월 조선신궁대회에서 2시간26분12초로 우승하여 처음으로 2시간30분벽을 무너뜨렸다. 김은배는 1932년 LA올림픽에서 6위를 기록하며 한국마라톤의 올림픽 우승 가능성을 내비쳤다.

2) 손기정: 2시간25분대 진입에 성공

김은배의 기록은 4년 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영웅 손기정이 제1회 조선선수권대회에서 2시간25분14초로 우승할 때까지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1933년 제3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1위에 오른 손기정은 1936년 8월에 열린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였다. 이는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 마라톤은 22년간 기록 경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과 관련, 동아일보가 폐간되면서 해마다 열어오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광복을 전후한 국내 정국도 혼란스러워 마라톤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최인진, 2006).

1947년 제51회 보스턴대회에서 서윤복(고려대)이 2시간25분39초로 우승하였고, 1950년 보스턴대회에서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함기용(양정중학 2시간32분39초), 송길윤(송문중학 2시간35분58초), 최윤칠(연희대학 2시간39분45초)이 1, 2, 3위를 휩쓸었으나 한국기록 수립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다.

3) 서윤복: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

1946년 5월 26일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한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39분30초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당시 2위와의 기록차이가 15분이나 되었다. 1947년 4월 19일 제51회 보스턴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서윤복은 2시간25분3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손기정의 기록을 뛰어넘으며, 세계기록까지 갱신하였다. 이는 동양인으로서의 보스턴마라톤 대회 사상 첫 우승으로 기록되고 있다(서기원, 양재성, 1999).

4) 임종우: 22년만의 한국 기록 수립

한국 마라톤이 기록 경신의 맥을 다시 이은 것은 1957년 4월 열린 제61회 보스턴대회이다. 한국을 대표한 임종우가 2시간24분55초의 최고기록을 작성한 것이다. 1936년 손기정 이후 처음이었다(조동표, 1995).

임종우에 이어 2년 뒤 한국기록을 48초 앞당긴 주인공은 손기정의 사위인 이창훈이다.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자인 이창훈은 1959년 9. 28수복을 기념해 열렸던 인천~서울간 국제대회에서 2시간24분07초를 기록하였다.

1962년에는 김연범이 제43회 전국체전에서 2시간23분56초로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이상훈은 1963년 도쿄올림픽 예선과 1964년 제18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각각 2시간21분54초와 2시간21분25초로 2년 연속 최고기록 경신에 성공하였다.

5) 이명정, 김복래: 동아마라톤에서 첫 한국 최고 기록

1965년에는 이명정이 제36회 동아마라톤에서 대회 첫 한국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 3월 7일 열린 대회에서 이명정이 세운 기록은 2시간21분21초6으로 1964년 동아마라톤이 폴코스로 바뀐 이래 처음 나온 한국기록이었다. 이어 5월에는 김복래가 제19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2시간21분19초2로 이명정의 기록을 경신한 뒤 1966년 제37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도 2시간19분07초를 기록하였다. 김복래는 2회 연속 한국 최고기록 수립과 함께 20분 벽 돌파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해마다 최고기록을 갈아치운 한국 마라톤은 이후 3년간 기록 행진이 주춤했으나 1969년 10월 제50회 전국체전에서 박봉근이 2시간18분18초로 한국 기록을 경신하며 다시 기록 경쟁에 불을 붙였다(서기원, 양재성, 1999).

6) 김차환: 2회 연속 한국 기록 작성

박봉근의 한국 기록은 1970년 제41회 동아대회에 참가한 김차환에 의해 경신되었다(조동표, 1995). 김차환은 이 대회에서 2시간17분34초4를 기록하였고, 3년 뒤인 1973년 제44회 대회에서도 2시간17분01초로 우승하여 자신의 한국

최고기록을 또다시 경신하였다. 1974년에도 한국기록이 두 번이나 경신되었는데 2월 조재형이 교토 마라톤에서 2시간16분26초를 수립하였고, 3월 제4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는 문홍주가 2시간16분15초를 기록하였다. 이후 10년간 한국 마라톤은 정체기를 겪었다.

7) 이홍렬: 마의 15분 벽 돌파

한국 마라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4년에 들어서부터이다. 3월 제5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이홍렬이 마의 15분벽을 무너뜨리며 2시간14분59초를 기록한 것이다. 이홍렬은 당시 코오롱이 15분 벽 돌파 선수에 내건 5천만원의 거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37회 대회부터 시작한 동아마라톤의 기록행진은 44~45회에 이어 57회와 58회 대회에서도 이어졌다(서기원, 양재성, 1999). 1986년 유재성이 2시간14분06초의 기록을 수립하였고, 1987년에는 이종희가 2시간12분21초로 12분대에 진입한 국내 최초의 마라토너가 됐다.

8) 김완기: 3번의 한국기록 경신

김완기는 1990년 3월, 제61회 동아 마라톤에서 2시간11분34초의 한국기록을 세우며 등장했다. 이듬해 11월, 제45회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에서는 2시간11분02초로 자신의 종전 기록을 30초 이상 앞당기며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다시 1994년 3월 동아 마라톤대회에서 김완기는 당시 ‘몬주익의 영웅’이라 불리던 황영조가 세운 2시간8분47초를 뛰어넘는 2시간8분34초를 기록하며 3번째

한국기록을 경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김완기도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35km까지 황영조, 모리시타와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하다가 뒤쳐졌고, 4년 뒤인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아킬레스건의 부상으로 인해 트랙을 한 바퀴만 돌고 바로 기권해야만 했다(조동표, 1995).

9) 황영조: 56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

1991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데뷔하였는데,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2시간12분35초로 3위에 입상하였다. 이후 황영조는 1992년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벳부~오이타간 국제대회에서 2시간08분47초의 기록을 수립하며 숙원의 10분 벽을 돌파하였다. 황영조도 코오롱이 10분 벽 돌파 선수에 내건 1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을 겸해 열린 제63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는 한전의 김재룡과 김완기가 나란히 2시간09분30초와 31초를 기록하며 국내코스에서 처음으로 9분대에 진입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손기정 선수 이후 5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94년 4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8분9초의 기록으로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2시간11분13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10) 이봉주: 2시간 7분대 진입

1994년 3월 김완기가 1994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08분34초의 최고기록을 수립하자 한 달 뒤 황영조가 보스턴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08분09초의 기

록을 수립하며 두 선수간의 기록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6년 황영조가 은퇴를 결심한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이봉주는 2시간8분26초로 2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한 이봉주는 단 3초 차이로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1998년 4월 로테르담 대회에서 2시간07분44초의 한국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는 황영조의 기록을 25초나 단축시키며 한국 마라톤에 2시간 7분대의 시대를 연 것이다. 그리고 2000년 2월 도쿄마라톤 대회에서는 2시간7분20초로 2위를 차지하며 한국기록을 갱신했는데, 이 기록은 아직까지 한국 마라톤경기의 최고기록으로 자리 잡고 있다.

IV. 한국 마라톤경기의 역사적 의의

민족주의, 즉 내셔널리즘이란 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그 스스로의 자립성이나 일체성 또는 우월성을 주장하고 과시하는 사상, 감정, 이데올로기 등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김동규, 한준영, 구강본, 2010). 또한 스포츠에서의 민족주의는 경기의 우승 등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내셔널리즘과 결합해서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동원하여 민족적 동질감 내지는 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여 독립과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창남(2003)은 이러한 스포츠의 내셔널리즘적 속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이지만, 스포츠에서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상징화시켜 나간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특정한 팀을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며, 마치 그들이 민족의 운명과 영광을 빛내주는 대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듯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황영조와 이봉주는 단순한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한민족의 혼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며 한·일 간의 축구 경기는 두 민족의 자존심 대결로 비화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스포츠 스타는 국가적 상징의 지위를 강제로 떠맡게 되곤 한다. 박세리와 박찬호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때 그들은 단지 일개 프로선수가 아니라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국가적 상징이 된다. 월드컵과 올림픽이 국가적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거기에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이 강력하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스포츠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그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에서 출발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국가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범국민적으로 민족주의적 정서가 팽배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이 시대는 독립을 위한 저항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그것은 민족주의 사상의 팽배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이 시대 모든 국민의 관심은 독립에 집중되었고, 문화, 음악, 예술 등 모든 문화도 민족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발달했으며, 스포츠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박영호, 하남길, 2000). 특히 광복 전 일본의 구기운동 금지와 단체 종목 금지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스포츠와 민족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한국에서 스포츠에 민족주의 개념이 내포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손환, 2011).

한국 마라톤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제10회 LA올림픽대회에 처음 출전하였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는 손기정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국제무대의 정상에 올랐다.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신문과 잡지는 스포츠 영웅을 최대한으로 선전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이벤트로 활용하였다(정진석, 2012: 14).” 그러나 일장기말소사건이 확산되면서 마라톤은 일제강점기에는 하기 힘든 종목이 되었다. 따라서 손기정과 남승용은 일제강점기에 마라톤을 할 수 없었고,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민족감정이라는 한민족 국가주의가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종목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마라톤경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1. 한국 마라톤경기의 민족사적 의의

1) 민족애환과 긍지의 표출통로

(1) 국제대회 첫 출전(1932년): 김은배·권태하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에 제10회 LA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김은배·권태하·황수을 등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각각 6위(김은배; 2시간 37분 28초)와 9위(권태하; 2시간 42분 52초)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올림픽대회에 첫 출전하여 좋은 경기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회인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특출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김은배, 권태하, 손기정, 남승룡 등은 지도자로 변신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선마라손보급회'를 설립하였다.

(2) 일장기 말소사건: 베를린올림픽 챔피언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는 한국 마라톤계는 물론 한국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제강점기였지만 국제대회인 올림픽에 참가하여 조선인 손기정과 남승룡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우승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마라톤계에서 '깎 수 없다'는 '마의 2시간 30분'대를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올림픽 최고기록을 갱신하면서 국제적인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회에서의 마라톤 우승은 세계 마라톤의 역사와 함께 한국 민족사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동규(2010)는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유형을 파시즘적 국가주의, 구국적 민족

주의, 문화적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의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말소사건은 구국적 민족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유근직 등(2012: 90)은 “손기정의 우승은 수십여 년 간 일제의 폭압에도 굴하지 않은 조선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반전이였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마라톤 자체가 구국과 문화의 단초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의 동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외세에 지배를 받게 된 정치공동체 구성원은 외부의 억압을 벗어나서 대외적으로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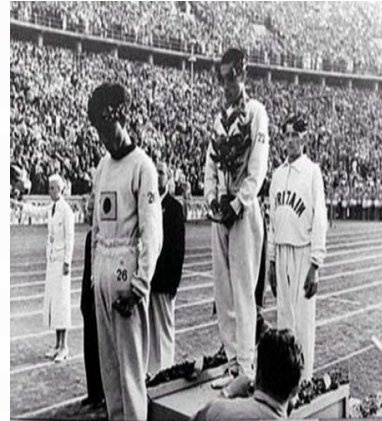


그림 1.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3위 남승룡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그리하여 피식민지의 구성원은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을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종은, 2003). 이에 마라톤을 비롯한 스포츠는 구국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구현에 항상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제패를 더욱 유명하게 한 계기는 ‘일장기 말소사건’이었다. 우승자 손기정은 경기 후 환희를 뒤로 하고, 신기록을 갱신한 마라톤의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주동진, 2012: 79). 그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 “슬퍼다!!?”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심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유근직, 박기동, 김명권, 2012). 손기정은 “나라 없는 설움으로 가슴이 메어질 듯해서 가슴 오른쪽 아래의 일장기를 뜯어내고 나는 조선 사람임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회고한 것이다(정찬모, 1997:

42). 그러나 일본신문은 이에 대해 “너무 감격해서 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함으로써 적반하장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장기 말소사건은 이러한 민족사적 애환과 환희의 엇갈린 모습을 연출한 사건이었다. 고개 숙인 마라톤 우승자의 행위는 민족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 항일 민족정신의 상징이며, 구국적, 문화적 민족주의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김동규, 주동진, 2004).

이러한 언론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언론학자인 정진석 교수는 최근 2012년 체육사학회 학술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당시 조선독립은 절망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던 시기, 희망의 작은 불씨조차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던 암흑천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손기정의 우승은 우리도 당당히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그는 민족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점화시켰다. 이 자신감은 민족정기로 승화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가슴에 뜨겁게 간직되어 오고 있다. 이는 미래의 역사에도 영원히 기록되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당시 일본의 탄압과 차별이 심해질수록 우리에게 구원의 영웅이 필요했다. 손기정은 이 시기에 나타난 민족의 희망의 빛이었다. 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영웅으로 만든 공로자는 언론이다. 그의 승리를 민족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복돋우는 계기로 삼았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의 필화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인물들이 있었다. 1910년대 자전거선수 엄복동, 1920년대 비행사 안창남이 있었고 1930년대엔 무용가 최승희 시대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가시적으로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낸 승리자들이다(정진석, 2012).

(3) 88서울올림픽의 성화 봉송주자 손기정

한국 마라톤에 있어서 1980년대는 침체기였지만 올림픽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스포츠계에 역사적 사건이 도래되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의 성화봉송 최종주자로서의 역할수행은 스포츠의 민족사적인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때의 침울한 모습과는 달리,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성화 최종 봉송주자로서 메인스타디움에 입장했을 때는 76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감격에 벅찬 모습으로 춤을



그림 2.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주자 손기정

추며 들어왔다. 춤추는 백발노인 주자는 광복한 조국과 발전된 제 나라의 모습을 세계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환희하였던 것이다.

최근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양상은 스포츠 경기 참여자와 일반 관람객 사이에 내면으로 교감되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더욱 강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박호성, 2002). 이에 희비가 엇갈린 손기정의 모습은 한국 스포츠계의 변화과정이 표출되는 순간이었음은 물론 그의 환희는 과거 일제강점기, 즉 식민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의 스포츠축제를 주도하고 발전하는 자국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데에 대한 감회로서 자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준 또 하나의 민족사적 표징이었다.

2) 마라톤 강국으로의 회상

(1) 세계신기록 갱신: 서운복

해방 직후인 1947년 당시 신인이었던 서운복은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보스턴 마라톤대회의 출전은 손기정과 미국의 존 켈리 선수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다(임석원, 조문기, 2009a). 이후 보스턴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손기정, 남승룡, 서운복이 출전선수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 'KOREA'라는 국호를 사용한 韓민족 사상 최초의 국제스포츠대회 진출은 1947년 제51회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이루어졌다(심성섭, 조문기, 2012). 서운복의 기록은 대회 신기록인 2시간 25분 39초로서 세계 마라톤의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되었으며, 그의 우승은 강대국의 힘에 의해 진공지대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조국 동포들에게 광복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감격이 되었다. 서운복을 필두로 함기용(54회 우승), 이봉주(105회 우승)에 이르기까지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은 3회에 걸쳐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마라톤에서의 성적들은 일제 강점기에서 갓 벗어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해방이 되었음을 전파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그림 3.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 서윤복: 세계기록 갱신

(2) 마라톤 왕국: 세계마라톤의 정상

1947년 서운복에 이어 1950년 4월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대회에서 함기용, 송윤길, 최윤칠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마라톤 왕국으로 부상하였다. 제54회 보스턴대회는 일제의 압제와 미군정 치하에서 쌓아온 '마라톤강국으로서'의 관록을 회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월부터 한국전쟁이 진행된 3년간은 한국이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에 있어 암흑기였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최윤칠이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에서의 4위 입상은 한국이 마라톤 강국의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석권하고 귀국한 최윤칠, 손기정, 함기용, 송길윤(왼쪽부터)씨가 환영행사장에서 참석한 모습. 손기정은 코치를 맡았다.
참고: 문화일보 자료사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26010336330060020>

3) 올림픽 우승과 마라톤 강국의 재현

1990년대는 한국 마라톤의 황금기에 해당한다. 1990년 3월에 열린 제61회 동아마라톤대회에 처녀 출전한 김완기는 2시간 11분 34초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원탁이 2시간 12분 56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하였다.

1991년에는 황영조가 7월 25일 영국 셰필드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2시간 12분 40초로 우승하였다. 그리고 1992년 2월 2일 일본의 항구도시인 오이타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제41회 벳푸-오이타마라톤대회에서 황영조는 2시간 8분 47초로 우승하였다. 이 기록은 한국 마라톤계의 염원이었던 2시간 10분의 벽을 깨뜨린 한국 마라톤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후 황영조는 8월 10일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결국 한국 마라톤계는 세계 정상에 다시 선 것이다. 일본인으로 출전하여 일본에게 금메달을 강탈당했던 손기정이 염원했던 한국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이 실현된 것이다.

이어 1993년 제97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김재룡이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2시간 10분의 벽을 연이어 깨뜨렸다. 1994년 제12회 히로시마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황영조가 2시간 8분 47초의 한국 신기록을 다시 바꾸면서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올림픽대회에서는 이봉주가 2위(2시간 12분 39초)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시 마라톤왕국이라는 명예를 되찾으면서 한국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족의 우수성이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비이성적 국가관은 전 근대적 사고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내재된 결집력과 위안성 등의 순기능적 가치는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외면할 수 없는 선물이었

다. 즉 내셔널리즘의 병리적 현상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와 관련하여서도 '강요된 충성'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낙착된 국가주의가 존재하나, 한국 마라톤의 우수성은 '자발적 애국'을 통한 민족정신의 고양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마라톤경기의 인물사적 의의와 사건

1) 夢陽 呂運亨: 베를린올림픽 우승자 손기정의 일장기말소사건 주도

여운형은 민족주의 고취를 통하여 조국의 광복을 도모한 정치가이자 체육인이었다. 특히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인물과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운형은 베를린올림픽 우승자 손기정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운형과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의미는 주동진과 고흥렬(2004)의 연구 '夢陽 呂運亨의 體育文化活動'에서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朝鮮中央日報은 中外日報의 지령을 계승하여 1931년 11월 27일에 창간된 中央日報를 개제한 신문으로 1937년 11월 5일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간된 일간지이다. 1933년 2월 16일 呂運亨이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고쳤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민간 3대지로 발전하였다(야후 백과사전).

朝鮮中央日報 8월 12일(수요일, 3036호) 夕刊 4~5면에 손기정선수를 중심으

로 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전체를 메우고 있다. 기사제목은 「空中을 타고오는 捷報에 三千里山河 威激의 波濤 ‘마라손王’ 孫君이 世界의 榮冠을 얻기까지」라는 주요기사에 이어서 「始作만 하면 全力을 集注 孫君의 性格」, 「孫基禎君 競技史」, 「오늘의 英雄, 우리孫基禎君의 背後에 숨은 힘 柳,趙兩氏의 指導力」, 「親切한 學友들의 눈물겨운 援助」 등의 표현이 이어져 나온다(韓國學研究院, 1985: 341-342). 이 날 조선중앙일보는 당시 베를린올림픽 스타디움과, 623번을 달고 달리는 모습 등 손기정선수를 기사화한 사진을 30편 넘게 게재하였다.

일장기 말소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사진은 朝鮮中央日報 8월13일(목요일, 3036호) 朝刊 4면에 「머리에 빛나는 月桂冠, 손에 굳게 잡힌 견묘목 올림픽最高 榮譽의 表彰받은 우리 孫選手 右는 우리南昇龍選手 左는 二等한 하과選手」 제목으로 실린 보도이다. 1936년 당시 손기정선수는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2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고 남승룡 선수는 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랐던 손기정선수, 그 가슴의 일장기를 조선중앙일보는 이날 신문에 보이지 않게 교묘히 가렸던 것이다. 이때의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바로 여운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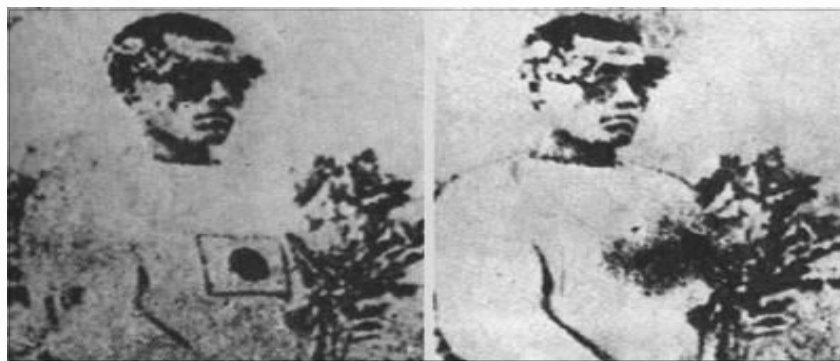


그림 5. 최초의 일장기 말살 사건과 조선중앙일보의 폐간

韓國學研究院(1985)에서 발행한 時代日報總輯(28)의 朝鮮中央日報는 1936년 9월 4일(일요일) 조간 3058호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보존 필름 1936」에서 찾아보면 1936년 8월 28일 목요일 5659호를 발행까지 하고 停刊에 취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아일보사에서 보도한 문제의 일장기 말소사건은 1936년 8월 25일 화요일 5657호 2면에 있다. 다른 아닌 일장기를 지워버린 손기정선수의 시상식장면이 나오는 것이다(동아일보 보존 필름 1936년, 946번 필름). 기사제목은 「월계관을 쓴 손기정, (上)머리에 월계관 쓰고 상수리나무를 든 마라손 패왕, 력주하는 손기정(下값)」이다. 이날 같은 신문에는 선명한 일장기가 보이지만(동아일보 보존 필름 1936년, 943번 필름), 이는 인쇄를 달리한 또 하나의 그 날 신문인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시 3대 신문 중 스포츠에 대하여 가장 많이 보도를 하였다. 주로 주간의 8면과 4면 석간의 2면을 스포츠란으로 고정하고 있고, 7월 1일 수요일 석간 5602호부터 停刊할 때까지 스포츠란(8면)에 올림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8월 16일 일요일 5648호 3면의 기사의 제목, 즉 「전 세계에 일흔을 떨친 우리의 孫·南 두 영웅 우리도 이제 소생한 듯싶으니 힘차게 살아 봅시다」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일감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문화정책과 세계대전 상황 등에 의해 停刊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李基炯(1993: 196-198)의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조선중앙일보 주최의 전국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25분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이미 세계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손기정 선수가 하루는 呂運亨을 찾아왔다. “여 선생님, 이번 베를린올림픽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나가는 것은 원통하지만 나가야 해. 나가서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돼.” 呂運亨의 대답은 단호했다. … 손기정 선수가 세계제패의 역사적인 우승 테이프를 끊은 것은 베를린 시간으로 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지나서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 꼭두새벽이었다. 8월 10일 아침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마라톤 세계제패」의 감격적인 호외와 그 뒷면에 실린 심훈의 「오오, 대한남아여!」라는 즉흥시가 독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조선중앙일보」의 운명의 시각은 다가오고야 말았다. “베를린에서 돌아와서 여 선생을 만나니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만날 수 있어야지. 왜놈들이 통 못 만나게 해서 리. 몇 달 후에 만나디랬지, 감격이 김빠진 후에. 여 선생도 신문사를 그만둔 후고.” 47년 전을 회상하는 손기정씨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1936년 연초부터 呂運亨은 신문사 경영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다. 승강이·삭제·몰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일분자와 악질 배들이 중상모략과 파괴공작이 쉴 사이 없이 이어졌다. 呂運亨은 버티다 드디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또 하나의 폭약이 터진 것이었다. 손기정 선수의 민족적 쾌거는 삼천리강산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조선중앙일보」 8월 11일자 신문은 손기정 세계제패의 기사로 꼭 찼다. 「마라톤의 제패, 孫·南 양군의 偉功」이라는 사설은 마라톤의 패권이 끝끝내 조선이 낳은 청년의 수중에 파지되었다는 소식이 한번 조선에 전해지자마자 새벽 하늘이 울리는 종소리와 같이 조선민중이 귀를 쳤다. 너무도 오랫동안 승리의 영예와는 연분이 멀어졌던 조선민중이 최초의 망연한 경악에서 지금은 의심 없이 승리의 旗가 우리들에게 돌아온 것을 확신할 때 이 위대한 환희의 폭풍은 적막한 삼천리 강산을 범람하고 진감시킴에 충분하였다.

기사 제목을 간추려 보면 「대망의 제패완성」 「반도의 歡聲漲溢」 「영원히 기념할 손군의 장거」 「조선청년의 의기충전」 「中歐의 창천에 용립하는 손군의 동상」 「반도남아의 의기의 상징」 등으로 독자층의 감정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게재된 손기정 선수의 앞가슴에는 일장기가 지워져 있었다. 이것이 「동아일보」와 더불어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살사건이다. 이로 인해 신문은 정간되고, 사장·주필·편집국장·사진기자·체육기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당국에 불려가고 혹은 구금되었다. 결국 사장은 성원경·이범익·고원훈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바뀌면 속간시키겠다는 총독부 당국의 통고가 왔다. 그러나 주주들은 “이는 종래에 지켜온 사시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차라리 옥쇄주의를 택해 회사를 해산한다”는 폐간

을 선언하였다.

“여연구에 의하면, 呂運亨은 사건을 일으킬 당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안심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기개와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내었고, 곧 총독에게 찾아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니 사장직을 사임할 것과 신문을 자진 폐간하겠다는 것을 제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 동판을 빌려가서 동일한 사진을 게재했다. 총독부 당국은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렇게 하면 속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은 속간대신 폐간을 선택하였다(주동진, 2003: 109).”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야후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36년 8월 13일자 신문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사진을 실으면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 말썽이 되어 그보다 며칠 뒤에 역시 손기정 선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와 함께 9월 5일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이 무기정간은 이듬해인 1937년에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휴간 동안에 뿌리 깊은 사내의 내분이 다시 일어나고, 재정상태는 재기불능으로 악화되어 1937년 11월 5일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일제 치하 민간 3대지의 하나였던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다.

일본은 조선중앙일보(8월 13일 조간 제3036호 4면)의 일장기 마크를 교묘히 가린 손기정선수의 사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세계제패 기사와 함께 조선중앙일보는 문을 닫게 되었다.

2) 南昇龍: 저평가된 민족 영웅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인 남승룡은 반환점을 돌 때까지는 33위였으나 30km지점 16위, 43km지점 6위로 극적인 레이스를 펼쳤고, 결국 영국 선수 하퍼(E. Harper)에게 19초 뒤진 2시간 31분 42초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남승룡은 초등학교 6학년 전남대표로 조선신궁대회에 출전해 1만m에서 4위,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어린 시절부터 마라톤의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1936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베를린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한 손기정선수와 함께 당당히 선발되었다. 그러나 남승룡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3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기정선수의 그늘에 가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광복 후에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1947년 36살의 나이로 보스턴마라톤에 출전해 10위를 차지할 만큼 그의 마라톤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였다.

남승룡과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의미는 손환과 이상우(2007)의 연구 '남승룡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중에서 민족사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남승룡은 1912년 11월 23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저전리에서 농민의 집안이었던 남찬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학업을 중시했던 중농의 집에서 태어나 서당교육을 받았지만 달리기가 좋고 친구가 좋아 1921년 순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 재학시절 지역대항시합에 나가 우승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후 남승룡은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의 우승 및 입상,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3위를 차지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마라톤을 통해 한없는 긍지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던 인물이며, 또한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 및 전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서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공로로 1962년 문화공로훈장과 1970년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은 국내 마라톤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승룡은 손기정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동포들에게 한없는 긍지와 희망을 안겨 주었지만 금메달을 차지한 손기정의 영광과 명예의 그늘 아래에서 언제나 그 뒷전에 가려져 있었다. 남승룡의 체육사상은 한국 스포츠인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주로 손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언급되어지고 있을 뿐 남승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다.

3) 孫基禎: 베를린올림픽의 우승으로 민족주의 정신 고취

대구에서 개최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손기정(孫基禎, 1912년 8월 29일~2002년 11월 15일)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 중의 하나였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1910년 8월 29일~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 마라톤선수로 참가하여 우승하였다. 그러나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시상대에 오른 그의 모습은 너무나 침울한 모습이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그는 올림픽성화의 마지막 봉송주자로서 감격에 벅찬 모습으로 춤을 추며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왔다. 52년 전 세계신기록을 깨고 시상대에

오른 스포츠 영웅이었던 그때의 그는 죄인의 모습과 같았는데, '88서울올림픽에서는 세월이 흘러 76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당시와 전혀 다른 기쁨의 대명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배경, 즉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하였지만 고개 떨어뜨린 슬픈 청년의 모습 그 원인은 조국의 국기 대신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올랐기 때문이며 춤추는 백발 노인 주자는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영광스런 올림픽을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6. 손기정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승룡.

희비가 엇갈리는 그의 모습처럼 한국의 육상 역사는 손기정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우선 그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5년에 마라톤분야에서 세계신기록(2시간 26분 14초)을 수립하였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는 올림픽신기록(2시간 19초 2)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광복 후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때에는 서윤복선수가 세계신기록으로 우승(2시간 25분 39초)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감독이었고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 때 역시 감독으로서 우승(함기용), 준우승(송길윤) 그리고 3위(최윤칠)라는 쾌거를 만들었다. 한편 경기성적과 달리 국민정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손기정은 많은 역할을 하였다. 우선, 광복 전에는 일장기말살사건(日章旗抹殺事件)을 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하여 조선인의 자부심과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광복 후에는 체육지도자로서 한국의 스포츠발전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공헌을 하였다.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3번째의 개최국

이다. 만약 손기정과 같은 선수나 감독이 있었다면 지원부족이라는 말은 핑계 거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또 가난한 신생독립국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우승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획득했었다. 그러므로 손기정에게 있어서 가난과 지원 부족이란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에게 있어서 선수는 어떤 목표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마라톤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의 마라톤 일생과 체육지도자라는 일련의 생애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체육관(體育觀)을 살피는 것은 한국 육상계에 교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손기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즉 베를린올림픽우승과 그 파급효과로써의 일장기삭제사건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으로 이 연구의 주요 논제인 손기정의 체육관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사진자료와 그의 유물 등을 통해 분석한다. 이는 그가 마라톤 우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여러 곳에 'Korea'와 한글 이름 '손기정'을 사용한 점 등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신기록을 갱신한 영웅이었고 또 감독으로 세계신기록을 탄생시킨 감독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체육관이 국가주의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기정과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의미는 김기한(2004)의 연구 '마라톤 영웅 孫基禎의 생애와 민족사적 의미'중에서 민족사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일제 36년 동안을 길고 어두운 암흑기로 표현한다면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을 입는 대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진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진과 더불어 불꽃처럼 타오르는 항일 민족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라톤 우승 후에 개최된 시상식 사진을 보면 월계관을 쓴

손기정이 월계수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린 채 시종 고개를 숙여 일본기가 게양되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일본신문은 “너무 감격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손기정은 당시의 심정을 “나라 없는 설움으로 가슴이 메어질 듯해서 가슴 오른쪽 아래의 일장기를 뜯어내고 나는 조선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회고했다(정찬모, 1997: 42).

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은 활발한 성격으로 사인 요청을 받으면 서슴없이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쓴 자신의 이름에 곁들여 나라 이름은 KOREA라고 적었다. 맞춤법이 오늘날과 달랐던 그때 손기정은 손기정이라고 썼던 모양이다. 때로는 ‘손기정 KOREA’ 옆에 한반도를 그려 넣기도 했다. 다음과 같은 손기정의 표현에서 애국자적인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일본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김은배 선배가 현지에 서 사인 요청을 받으면 한글로 써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대로 따랐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글로 사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손기정은 선수촌 안팎에서 외국인이 “어디서 왔소?”라고 물어보면 “KOREA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사인하기로 되어있는 독일의 국민방명록에도 ‘손기정’이라고 한글로 뚜렷이 적었다.

리처드 만텔은 그의 저서「나치올림픽」에서 손기정이 우승을 차지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고두현, 1997) 적고 있다.

“손은 사실 한국인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열렬한 민족 독립주의자였다. 그의 조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 당했으며, 그가 국제적으로 이기는 방법이란 그 가슴에 증오의 상징인 일장기를 달고 뛰는 것이었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동안 공식

적인 사인을 요구받으면 언제나 한국이름을 썼으며 그 옆에 한반도 지도를 잊지않고 그려 넣었다. 보통 질문을 받을 때 먼저 「어디서 왔습니까?」라는 말부터 나오면 그때마다 손은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아무도 그의 대답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중대한 사실을 적어둔다면 그 마라톤 레이스의 시상식 때 손기정과 남승용은 기자들에게 자기들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경기 후 인터뷰를 받은 손기정은 조국의 어려운 처지를 세계 각국에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일제의 통제가 심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경우, KOREA로 국적을 표기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두현(1997)은 버드 그린스팬이 쓴 「올림픽 역사의 100가지 위대한 순간」에 담겨진 손기정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기 초반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의 자바라가 선두를 달렸고, 그의 뒤를 쫓는 선수들 가운데 일본의 손기정이 끼어 있었다. 손기정은 그의 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당한 4년 뒤에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그가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는 길이란 일본선수단에 끼는 방법밖에 없었다. 손기정은 일본 깃발 아래 출전하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것을 불행으로 여겼다. 미국의 전설적인 마라토너이며 손기정의 친구가 된 존 켈리는 “손기정은 단호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에게나 「Me Korean-----not Japanese」라고 말했다.”

손기정의 국적표기 사인은 나라 잃은 국민의 한을 풀고 싶은 충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 손기정은 마라톤을 통하여 애국을 실천한 진정한 애국자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손기정과 남승룡이 세계 마라톤을 휩쓴 것에 대해 겉으로는 일

본체육의 개가라고 흥분해서 떠들었지만 내심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일본 측은 손기정이 우승소감에 대해 마스크와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일본의 관계자들은 올림픽 개최국인 독일 관영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단 한번 허용했을 뿐 그 밖의 서구지역 방송이나 신문들과 접촉하는 것을 일절 막았다. 이는 최고 영예의 월계관을 쓴 선수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 질까봐 미리 방지(황영조, 1998: 36)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는



그림 7. 손기정 투구

자칫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이 조선반도에서 민족주의 정신이 크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언론의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1945년 10월27일 서울 운동장에서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가 10개 종목에 걸쳐 열렸을 때 손기정은 기수로서 태극기를 들고 4000여명의 선수를 이끌고 입장할 때 훗날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대뜸 아래를 가리키며 “저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선수가 손기정 아닌가. 내가 미국에서 독립 운동에 헌신하고 있을 때 저 손 선수가 올림픽을 제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밤을 지새우며 기뻐했다”고 1936년의 여름에 겪었던 감격을 회상하였다. 그 말을 듣자 감수성이 강한 손기정씨는 그만 “가슴에 복받쳐 솟아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말았다”고 했다(고두현, 1997: 369).

손기정은 1983년 한국일보사가 펴낸 그의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에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

내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나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것일까. 레이스의 종착점을 눈앞에 둔 것은 아닐까. 참 긴듯하면서도 짧은 게 인생이다. 모든 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나는 긴 마라톤 코스 위에 덜렁 나 혼자 남은 듯 외로움을 느낀다. 벌써 누군가 레이스는 끝났다고 결승테이프를 걸어버린 건 아닐까. 지난 그 때 올림픽에서처럼 그저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중략>...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마라톤은 혹시 풍족해서,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더 후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승리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한길을 찾아 달린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에도 미쳐야 한다. 미친 사람의 집념과 고집이 없었던들 어찌 식민지의 배고픈 젊은이가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었으리요. 나의 마지막 소망은 후배 마라토너들의 힘찬 승전가를 들으며 눈을 감는 일뿐이다.

나라도 없는 허약한 망명객이라고 천시(賤視)받던 이승만에게 고국 청년의 마라톤 세계 제패는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객지에서 외로이 독립 운동을 펼치는데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민족에게 자신감, 용기, 희망의 메시지를 준 선각자였다. 독립운동을 한 당시의 지사들 이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손환(2012)의 연구 ‘베를린올림픽을 통해서 본 손기정의 민족의식’중에서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기정은 첫 공식대회인 조선신궁경기대회를 통해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알게 되었으며, 경영마라톤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배우기 위해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손기정의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입학은 자신의 목표인 올림픽 제패의 실현은 물론 민족의식이 싹트는 시기로서 손기정의 인생에 있어 분수령이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베를린올림픽 우승 후 손기정은 사인요청에 'KOREAN 손기정'이라고 해주었고, 특히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본 태극기는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으며 조국에 대한 개념도 일깨워주었다.

셋째, 일장기 말소사건은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실의에 빠져있던 한국 국민들에게 손기정을 통한 대리만족, 즉 손기정을 통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조선사회의 민족지도자들에게도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손기정의 민족의식은 올림픽 이전에 이미 싹트고 있었으며, 올림픽 우승을 통해 한국인과 한글사인으로 자신의 민족의식을 표출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주었으며, 또한 일장기 말소사건은 친일파로 변질되어가는 민족지도자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경종의 메시지 역할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志巖 徐潤福: 태극기를 단 한국 최초의 국제경기 마라토너

서윤복은 1947년 4월 19일 제51회 보스턴국제마라톤 대회에 베를린올림픽 주역인 손기정 감정, 남승룡 선수 겸 코치와 함께 선수단을 구성하고 참가하여 2시간 25분 39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인으로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보스턴대회에서 동양인으로서 대회 사상 첫 우승이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에게 8·15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민족적 기쁨과 자존심을 안겨 주었다.

보스턴대회 제패는 미군정 치하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한민족의 염원을 발산하여 달성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마라톤 한국의 위상을 격상시켜 '세계 속의 KOREA'를 각인시키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7년 선수생활을 마친 후 서윤복이 우승을 차지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감독으로 참가하였고,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 및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임원으로 참가하는 등 육상지도자로 후진양성에 힘썼다. 1966년에는 제5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하여 한국이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공헌하였다. 1948년에는 새로 조직된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체육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1963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1966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1970년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 1978년부터는 4년간 대한체육회 이사, 1982년 마라톤 강화위원장 등을 재직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제84차 총회에서 서울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한 교섭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국제 스포츠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대회를 유치하는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서윤복은 은퇴 이후에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이사, 전무이사, 부회장 등으로 40여 년 간 봉사했고, 보스턴마라톤참가선수단을 비롯하여 올림픽, 아시아대회선수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선수단 감독 또는 단장 등을 맡아 지



그림 8.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이후 경교장에서 기념사진. 왼쪽부터 손기정, 서윤복, 김구, 남승룡

도자와 체육행정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도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윤복의 체육사상은 한국 스포츠인물사 연구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다.

서윤복과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의미는 임석원과 조문기(2009)의 연구 ‘志巖 徐潤福의 생애와 체육활동’중에서 결론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첫째, 서윤복은 아현화광소학교 재학 당시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제패 소식을 접하고 세계 최정상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경성상업실천학교 입학 이후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각종대회에서 연전연승하며 승승장구하였고, 이것은 후일 손기정, 남승룡 등과 함께 신생 한민족의 역량을 마라톤을 통해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조직한 보급회에 합류하게 되는 인연으로 발전하게 된다. 보급회의 소속선수로서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한국 최정상의 자리를 점유했던 서윤복은 이를 발판으로 보스턴대회에 출전하여 그것을 제패하는 것으로 그의 선수 인생에 있어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둘째, 자신을 지도해준 손기정의 헌신에 감복하여 본인 역시 후진양성에 매진하고자 결심한 이후 송길윤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발굴하게 되었으며, 열정과 헌신으로 지도하여 당시 중학생이었던 송길윤을 제54회 보스턴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하였다. 셋째, 서울시립운동장장을 역임하면서 그곳을 대대적으로 개수하는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적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으며, 특히 한국 스포츠시설 사상 최초로 야구장의 야간 조명시설과 메인스타디움의 타탄트랙 설치 작업을 주도하여 서울운동장이 명실상부한 한국스포츠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게 하는데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서윤복은 선수, 지도자, 체육행정가 등의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더하여 과거 서윤복이 달성한 보스턴대회에서의 쾌거는 서윤복 본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신생 독립한 한민족의 이름을 스포츠를 통해 최초로 세계에 당당히 알린 것으로서 대한민국 근대체육이 달성한 그 어떤 결과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波荷 李吉用: 일장기 말소의거 기자의 체육, 문화활동

파하(波荷) 이길용은 1920년대~30년대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체육발전과 항일 운동에 나섰던 대표적인 엘리트였으며, 척박한 한국체육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한국 체육계에 남긴 업적 중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한 사건은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은 한국 항일 언론투쟁사의 최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체육사적 조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93년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발간한 ‘일장기 말소의거 기자 이길용’이 있으나 이는 인물사적 시도로서 체육학적 접근이 아니었다. 그동안 이길용에 대한 연구는 체육학에서도 거의 시도되지 못하다가 주동진과 김동규(2006)가 이길용의 체육문화 활동에서 스포츠내셔널리즘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고, 손환(2006)은 이길용의 생애와 체육사상을 발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체육사의 산증인으로서 한국체육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이길용의 체육문화활동을 재조명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1) 이길용의 생애와 체육, 문화활동

이길용은 1899년 9월9일 경남 마산에서 본관을 경주(慶州)로 쓰는 이차상씨와 이복순여사의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마산의 경작지 중 상당 부분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그의 가족은 울분을 달래며 고향을 떠나 인천 동구 창영동(옛 인천백화점 건너편)으로 이사한다. 이후 인천영화학교를 졸업하고, 14세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신문학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이때부터 경인기차통학생회를 통해 인천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1916년 배재학당을

졸업 후 이길용은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에 유학에 나섰으나 “모친 위독 급래 요망” 전보를 받고 돌아온 그는 가족들의 만류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18년 철도 경성관리국 역무원으로 취업한다.

1919년 이른 봄, 이길용은 3.1운동을 전후해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 독립운동 조직망을 확산시켜 나갈 때 임시정부의 비밀문서를 철도편으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고 활동하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을 비롯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만해 한용운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 경성감옥에 투옥되어 3년 형의 실형을 받는다. 복역을 마치고 출옥한 이길용은 인천에 거주하는 배재학교 학생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인배회'에서 1921년부터 1924년까지 회장과 총무를 번갈아 맡아 활동한다. 비슷한 시기에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창립한 '제물포청년회'에도 가입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1922년 이길용은 육고를 치르다 인연을 맺은 동아일보 사장 고하(古下) 송진우를 만난다. 이길용의 명석한 두뇌와 항일정신, 필력(筆力)을 높이 산 송진우의 끈질긴 설득으로 동아일보에 입사해 인천지사의 일을 함께 보면서 운동부(현 체육부)의 전담과 1924년 8월에는 '조선운동기자단(한국체육기자연맹의 전신)'을 조직하였으며, 1950년(52세) 여름 6.25전쟁의 남북 생사불명 때 까지 한국 체육계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한다.

이길용은 세인들에게 알려진 일장기 말소의거 뿐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해 6차례의 육고를 치렀는데 이에 국가보훈처는 1991년 8월15일 광복 45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특히 그는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을 본격화 시킨 장본인으로 체육기자의 선구자로 지칭되어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는 1889년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이어오고 있다.

(2) 운동부기자로서 이길용

가. 여성스포츠의 디딤돌

1922년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이길용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당시의 동아일보사장 송진우를 찾아가게 되고, 송진우의 권유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운동부 담당을 15년 동안 맡게 된다. 이길용이 운동기자로써 가장 주요한 몫을 하기 시작하여 위상이 정립되기는 1923년 6월 30일 동아일보사 주최로 개막된 전국 여자 정구대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은 특이할 만하다. 제1회 경기는 정동 경성 제1고녀 운동장에서 1923년 6월 30일에 열려 서울의 숙명, 진명, 정신, 경성여고, 동덕, 배화가 지방에서 공주, 영명, 개성, 호스돈 등 8개교가 국내 최초의 여자 공개 스포츠로 열리는 이 정구대회는 거의 이길용 기자의 전담 주관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여성 체육계 최고의 정화(精華)로 정평이 있는 전 조선 여자 정구대회는 1919년 경성일보가 주최해 온 일본 여성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여학생 선수출전의 문호가 활짝 열려, 70년 전부터 여성의 지위향상의 기여에 전환점이 되었으며 미래 사회의 모성을 건설하게 다지는 여권운동의 모체로 계몽적 의미를 수밖엔 없었다.

당시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통치마에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남자는 입장과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특보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정구대회는 팬들을 열광시켰고, 여성의 체질에 알맞은 정구의 보급과 장려는 새로운 근대화의 자각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동아일보가 주최해 온 이 행사의 전모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10회 대회를 즈음하여 여자정구 10년사를 1932년 신동아 9월호와 10월호에 장문으로 연재하고 8회 대회에선 이광수 작사에 배재고 동창인 안기영이 작곡한 장엄하

고 쾌활한 대회가는 아래와 같다.

1)하늘에 빛이요, 땅에 힘일세.

젊은 딸들의 넘치는 기쁨

라켓을 맞아 허공 달리는

아으, 기쁨도 깊다.

2)싸우는 속에 예절을 뵈고,

용감하면서 온순하더라.

맘을 합하고, 법도 맞추어

정정 당당히

아으, 겨루는 우리.

이는 온순하고 용감한 가운데 마음을 합하며 법도에 맞추어 실력을 겨루는 축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날 여성 체육 발전의 많은 부문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일장기말소 의거

1932년 여름은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으로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거행된 올림픽대회에는 일본 선수단 1백31명 중 3명의 한국인 선수가 끼어 있었는데 권투에 황을수, 마라톤에서 김은배, 권태하 두 선수는 당당한 유망주였다.

이길용 기자는 마라톤에서 6위와 9위로 그라운드에 들어오는 김은배 선수와 권태하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감쪽같이 없애 버렸다. 너무나 은밀히 결행한 이 의거는 4년 뒤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세계 제패를 했을 때 일장기를 말소하는 의거의 전주곡이었으며 이길용은 1936년(38세) 8월 25일자 동아일보 2면에 올림픽 마라톤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제거 보도함으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40일간 고문과 함께 유지되며 동아일보 퇴사 서약서를 쓰고 난 뒤 방면이 되었다. 이어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29일에 4차 무기정간을 받고 이길용은 강제 퇴직과 함께 사회활동이 금지되어 1945년 8월15일 조국 해방을 맞이함으로서 12월에 동아일보의 복간과 사업국장장과 보선 체육동지회평의원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다. 손기정 마라톤우승 일장기 삭제 보도와 의의

이길용 기자는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자존심과 민족해방을 기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 손기정선수의 마라톤 우승을 통하여 의거를 시도한 것이다. 즉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을 기념하면서 민족혼을 일으키고 청년들의 조국애를 심어주는 많은 글을 연재한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그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13일 화보에서 ‘지상 천하에 넘치는 제패의 의기’로 화보를 특보한다. 월계관 쓰고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과 남승룡 두 선수의 사진에는 일장기가 그대로 나와 있다. 이날 ‘청년들아 일어나자’로 궤기를 촉구하는 사설을 싣고 있는 동아는 은인자중하며 아직은 일장기를 화보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여운형 발행의 중앙일보만은 재빨리 일장기를 지워버린다. 양정출신 유해봉 기자의 발 빠른 거사였다. 조선 총독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이길용 기자 주도로 25일자에서 이를 말소하여 크게 문제화되자 중앙일보는 당국에 자수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 신문은 운영난에 겹친 휴간이 아주 폐간으로 이어지는 비운을 맞이해야 했고, 곧 연행되어 간 유기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투옥되는 시련과 수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 84).” 동아의 조직적인 항일 논조는 맏히고 맏힌 민족한의 분화구로 폭발되어 나왔다. ‘세계적 조선애의 기원’이라고 부제를 단 8월 13일자 사설 ‘청년들아 일어나자’ 부터가 이를 실증하는 거센 불길이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한국체육기자연

맹, 1993 : 84-86)을 부분 발췌하였다.

우리는 청년을 부른다. 기쁠 때도 청년을 부르고, 슬플 때도 청년을 부르는 것이다. ... 스파르타의 어머니는 짧은 창을 아들에게 주면서 ‘너 창이 짧다 이르지 말라. 그만큼 더 뛰어 나가라.’ 하였으니, 스파르타인의 용기는 창이 짧다고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조선 청년들은 듣는가 못 듣는가. 그대들은 과연 엄청나게 짧은 창들을 든 것이 사실일 것이다. ... 그대들의 동무는 그 같은 불우와 빈곤과 싸우면서도 22억의 선두를 달리지 않았는가. 그는 과연 짧은 창으로써도 위대한 승전자가 된 것이다. ‘평계’로 전장을 물러서지 말자. 용기로 돌진을 계속하여야 된다. 살필진대 우리의 전선을 지극과 광범하여 전성의 어느 한 부분에는 돌진이 공을 세운 곳도 있지마는 모든 다른 부분에서는 굴욕의 퇴각을 개시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이 있는 역량을 이 모든 전선에 총동원시켜 快絶壯絶 한 총 공격을 개시하여 우리의 기필하는 大功을 세워야 될 것이니, 청년 조선의 책임! 또 그 얼마나 무겁고 크다 할 것 이냐.

이는 “스스로를 분발 시키는 촉구이자 은연중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것이 없었다. 동아일보에 의한 일장기말살의거가 일어난 것은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하고 나서 2주일이 지난 뒤인 8월 25일 자였다.(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 86).” “결국 사진 담당 기술원 백운선과 서영호, 그 사진을 지면에 실은 사회면 기자 장요단과 임병철 사진부장 신락균, 미술 담당 기자 이상범, 운동담당 기자 이길용, 사회부장 현진건 등 8명이 경기도 경찰부에 차례로 연행되어 갔다(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 92).” “일장기 말소의거 다음날인 26일에 서울로 부임해 온 미나미 (南次郎) 총독은 동아에 첫 선물로 29일부터 무기 정간처분을 내렸다. 4차 정간이었다. 자매지 신동아와 신가정 또한 폐간되어 왜 정치 하에서는 다시 회생하지 못하였다(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 93).”

“일장기 말소의거의 직접 책임자로 이길용 기사를 비롯하여 현진건, 최승만, 신낙균, 서영호 등 5인은 ‘1) 언론 기관에 일절 참여 안하고, 2) 시말서를 쓰며, 3) 만일 또 다른 운동이 있을 때에는 이번 사건 책임에 가중하여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함.’ 등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40일만에 가까스로 석방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 의거로 동아에서는 송진우 사장과 장덕수 부사장, 김준연 주필, 설의식 편집국장과 양원모 영업국장, 현진건 사회부장, 이여성 조사 부장, 박찬희 지방 부장, 최승만 잡지부장, 신낙균 사진과장 등 임원과 체육주임 이길용, 화백 이상범, 기자 장용서, 그리고 서영호 등 무려 14인이 사직하기에 이른다. (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 94).” “손기정의 세계제패가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망국의 슬픔을 삼천리 반도에 넘쳐흐르게 했지만 그것은 ‘한민족은 살아있다’는 구국 선언을 천명한 거사였다.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사건은 또한 훗날 조국광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외 독립운동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황영조, 1998 :41-42).” 동아일보 1996년 8월 9일자 신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손기정선수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승리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남승룡 두 선수가 당당 1,3위를 차지하고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운 손선수의 사진을 실은 것이 민족의 기개를 드높이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음이 당시 일제의 정부분서에서 밝혀졌다. ... 이 집무보고서는 ‘조선민족이 마라톤 우승 선수로 인해 받은 충동’이라는 항목에서 ‘손, 남 두선수의 승리가 조선 민족의 민족적 각성과 단결을 부추겨 무시 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두 용사의 우승이 조선의 피를 끓게 했고 한 번 일어나면 세계도 손안의 것이라는 신념과 기백을 가지도록 했다’고 논했으며 ‘손선수 유니폼의 일장 마크를 고의로 말살한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조선이 일본에 승리, 조선 독립의 기초가 이루어 진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고 기술했다.”

위 글은 동아일보가 손기정선수의 마라톤우승 의미를 조선의 승리이자 민족 구성원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게 하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손기정선수는 조선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식과 조국의 존재, 그리고 조국광복이라는 숨은 뜻이 내재된 존재였다.

(3) 이길용이 남긴 체육과 관련 기사

가. 서늘한 섬나라(1926. 8. '別乾坤')

울릉도에 대해 소개와 여름 피서지로 매우 좋은 곳이라 추천하면서 자연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 가운데 울릉도의 역사와 조선과 일본의 항쟁 후 조선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소개한다.

나. 격동의 세계 스포츠(1932. 1. 동아일보)

1932년 전 세계의 스포츠 계는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올림픽대회의 우리의 염원과 함께 지금 이 바로 준비를 할 때라고 글을 맺고 있다.

다. 브라보 養正! 일본 驛轉 우승까지(1932. 6. 東光)

조선의 젊은 스포츠계를 위하여 멀리 일본까지 그 의기와 男力을 발휘하고 돌아온 동교의 경기사는 조선의 육상 경기사, 아니 체육사의 일면을 찬연히 장식하고도 남은 바 있다. 여기에서 민족의식, 즉 항일의식이 보여지고 있다.

라. 올림픽 선수를 낸 학원을 찾아 (1933. 6.26-29. 동아일보)

마라톤의 養正高普, 권투의 中東高普, 축구의 普城專門,을 소개하며 우리의 조

선 스포츠 ‘젊은 조선의 의기는 세계무대로 향하여 돌격하고 있다’ 등의 글로써 국가의식과 세계 제패라는 자부심 속에 전투적인 항일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마. 運動記者列傳

“월광이란 필명으로 1993 -1994년 무렵에 월간지에 기고한 특별유고로 조선 운동의 역사와 체육기자에 대한 소개로 당시 동아, 조선, 조선중앙, 매일신문의 운동란 설치와 체육기사를 보도하면서 특별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바. 現代 朝鮮 스포츠 史 : 특히 韓末前後를 記함(1934. 3. 新東亞)

그는 문호개방으로 외래 경기가 들어와 정규 축구 경기에 이르는 발자취에서 1904년 야구가 들어옴과 훈련원 경기의 珍景, 국내외 경기 원정, 야구단 구성, 전국 정구 선수권 개최까지, 농구 원정 시초는 1920년, 싸움판이 된 청파 육상경기대회, 빙상의 흐름, 3期로 나누어본 체육사 등 조선체육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 중대한 統制 過程途程의 체육계(1934동아일보)

이길용은 스포츠를 통하여 百折不屈의 정신을 일깨우고,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유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마라톤 - 온갖 스포츠의 精華인 육상경기 그중에서도 가장 유서가 깊은 총화적인 마라톤 스파르타의 武勇에서 짝이 텃고 더욱 빛나 아테네의 흥망여부를 걸고 승리를 외친 피디피더스의 죽음 이것이 마라톤의 장엄하고도 비절한 유서가 아닌가. 기 본디 뜻은 바로 意氣요 용맹이요 젊은 조선의 氣象인 것이다. ...전조선의 젊은 의기와 가력을 한데 뭉

칠진대 통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존재로 일어서리라.

이는 이길용의 체육문화활동 역시 국가의식과 항일투쟁이 내재된 스포츠내셔널리즘이 가미된 언론활동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엘리트스포츠 보도 등의 언론활동으로써 국가관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

이길용은 1919년(21세)부터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투옥되기 시작하였으며 체육기자생활을 하면서 그는 1927년 조선운동 기자단을 조직과 1930년 새 체육 용어 보급과 일간지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체제 운동기자로 운동란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시초 인물이기도 하다. 1931년 조선 체육연구회 발기와 1932년 제10회 LA올림픽 마라톤 김은배 선수의 일장기 삭제보도,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손기정 우승 일장기말소보도, 이처럼 광복 전 문화활동은 체육기자로써 언론활동의 전념과 한민족에 새로운 체육, 즉 외국의 체육을 이해하고 소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김성수, 송진우, 김준연, 조병옥 등과 함께 한민당을 창당하고 정보부, 조직부 차장을 지내며 비상국민회의 대위원에 선출, 1948년 정부수립 전후 서울특별시 고문 배재중학 동창회 부회장, 이화여대 재단이사, 민국당 중앙당 상임위원 등 많은 사회활동을 함과 동시에 1949년 부민관 대강당에서 대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어 29인 중 1인으로 공로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길용의 체육 관계 문헌인 大韓 體育史는 한국 운동경기가 들어온 이후의 기록을 상하 2권으로 나누어 간행할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48년4월에 8.15해방 이후의 기록 중점을 두어 解防體育年鑑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고자 자료 수집에 착수하여 여러 번의 난관을 거친 끝에 ‘한국 운동경기 총람’이라는 부제로 ‘체육대감’을 연합신문사 발간으로 세상에 내보내게끔 되었고 이 “경기 약사” ‘체육대감’은 40면의 화보와 함께 상당 부분이 파하의 채취가 배어 있어 이길용

판 체육사이자 한국 체육사의 상징적 얼굴이며 거울이기도 한 파하였다.(한국기자연맹, 1993 : 97).

동아일보의 체육기자로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스포츠기사와 체육 관련 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주의 사상을 불어 넣었으며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정치와 체육회 임원으로 왕성한 사회 문화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체육문화 활동은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엘리트 스포츠를 통하여 조선인에게 항일의식과, 국민의식, 국가의 존재를 일깨우려한 것과 함께 이길용의 언론활동은 독립 투사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남긴 유문에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5) 한국 마라톤의 민족주의 사건: 일장기말소사건 보도자료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손기정 선수 일장기말소사건은 민족 구성원에게 조국애를 함양시키고 조국해방을 지향케 한 대표적인 예이다. 손기정이 마라톤 우승을 차지하면 한민족의 기개를 고양시킨 날은 1936년 8월 9일이다. 일장기말소사건은 당시 동아일보 체육기자 이길용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길용은 손기정의 시상식 장면 사진을 입수하여 일장기를 삭제하여 8월 25일자 2면에 보도하였다. 석간인 동아일보 8월 25일자 2면에는 일장기가 없는 손기정의 사진이 실린 것이다. 당시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20사단 사령부는 신문 발송과 배달중지를 지시하였으나 이미 많은 양의 신문이 배포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이길용을 비롯하여 50여명의 관계자가 연행되었고, 8명의 기자가 구속되었다.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은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에도 게재되

었다. 조선중앙일보는 8월 13일자 4면에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어 검열을 통과했지만 동아일보 사건이후 파문이 커지자 9월 5일부터 자진휴간에 들어갔다. 결국 일장기 말소사건은 마라토너 손기정이 민족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1) 조선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자에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삭제한 채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일장기말소사건의 최초 보도이다. <그림 9>는 당시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우승 시상식 장면이다. 당시 기사에는 “머리에 빛나는 月桂冠, 손에 굳게 잡힌 檉苗木 올림픽 最高榮譽의 表彰받은 孫選手”라고 되어 있다. 사진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오른쪽의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일장기가 지워져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래서 총독부 당국의 검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중앙일보의 기자인 유해봉이 사진부원과 협의해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것이라 발표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조선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의 우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었던 여운형도 마음껏 민족의식을 주입하라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하정희, 2012).

그러나 8월 25일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 때문에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도 함께 수사하면서 문제가 되어 결국 폐간되었다. 조선중앙일보는 일제강점기에만 존재했던 민족 언론사가 되었다.



그림 9. 조선중앙일보 일장기 말소(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

(2)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손기정 우승 후 4일 뒤인 8월 13일에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채 신문지문에 실었다. 당시 내용은 “영예의 우리 孫君 머리엔 월계관, 두 손엔 橄欖樹의 花盆! 마라손優勝者 우리 勇士孫基禎君”이라고 되어 있으며,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가 지워져 있으나 교묘하게 월계수 화분에 가려져 있다. 일장기말소사건의 발단은 8월 25일자 동아일보 석간 2면에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선수의 감격적인 사진이 실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주간지 ‘아사히스포츠(朝日スポーツ)’를 뒤늦게 입수해 거기에 실린 사진을

복사하여 전제한 것이다. 초판 때는 일장기가 선명하게 보였으나 재판에서는 원본과 달리 유니폼 가슴부위의 일장기가 교묘히 삭제되어 있었다. 체육부 기자 이길용이 전속 화가 이상범에게 사진 속의 일장기처리를 상의했고, 동아일보의 다수의 편집자들도 동참하면서 사건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이길용은 손기정이 일본인을 이기고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상범에게 부탁해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것이다(하정희, 2012).

<그림 10>은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2면지에 실린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일장기말소사건'의 신문이다. 동아일보사가 일으킨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0.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3) 기타

언론을 통한 민족의 독립운동은 신문만이 아니라 잡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11>는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이길용이 처음으로 직접 자술한 회고록이다.



그림 11. 이길용의 일장기말소사건 자술 회고록

이길용의 자술 회고록은 해방되어 영문으로 미주둔군 보도진을 통해서 쓰였고, 자기 자신이 관여했던 일장기말소사건을 회상하여 자술하니 머리가 지긋지긋한 당시의 묵은 기억을 일깨워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길용은 광복 이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당시를 회고하며 일장기말소사건은 민족적 감격에서 비롯되었으며 죽어서도 잊지 못할 중대한 일이었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가 정간당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움을 표

시켰다. 이처럼 일장기말소사건의 장본인인 이길용이 직접 자술한 회고록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 근대 체육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하정희, 2012).

V. 결론

마라톤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 첫 출전부터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으며, 손기정과 남승용 등의 세계 제패는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한 대표적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와 더불어 일장기 말소사건과 같은 언론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스포츠를 통한 민족적 독립의지의 가능성과 통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마라톤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둒으로써 마라톤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최근 다소 부진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성취들에 의해 한국이 마라톤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의 상징이자 국가이미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과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 역사적 의의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인 연구논문, 단행본, 신문, 잡지,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과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보도사진과 영상 등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라톤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마라톤의 유래를 살펴본 결과 고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한 병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유래하였다고 보는 전통적 기원설과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건으로 보는 허구적 조작설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마라톤의 역사를 경기기록의 변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록이 갱신되고 있

으며, 현재 남자의 경우 2시간 3분 38초의 기록, 여자는 2시간 15분 25초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한국 마라톤의 형성과정을 도입과정과 전개양상, 기록사와 인물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마라톤경기의 도입과정으로써 육상경기는 1896년 5월 2일 '화류회(花柳會)'로부터 시작된다. 운동회 성격의 육상대회에서 벗어나 1927년 조선신궁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마봉주의 기록이 한국 마라톤의 첫 공식기록으로 기록된다. 마라톤의 전개양상은 선행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거시적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5단계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 마라톤의 효시(일제강점기: 1920-1930년대), 둘째, 한국 마라톤의 부흥기(미군정기-6·25민족전쟁기: 1940-1950년대), 셋째, 한국 마라톤의 침체기(경제성장기: 1960-1980년대), 넷째, 한국 마라톤의 전환기(세계화시대: 1990-2000년대), 다섯째, 한국 마라톤의 방황기(2010-현재) 등을 거쳐 한국 마라톤이 전개되어 왔음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마라톤경기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한국 민족사에 있어서 마라톤은 첫째, 일제강점기에서는 억눌린 민족감정을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 해방 이후에는 후진국이라는 비애와 서러움을 해소시키고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통로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에 의해 한국이 '마라톤왕국'이라는 칭호의 여운을 간직한 채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인물과 사건 부분에서는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도한 여운형과 이길용, 마라톤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긍지와 희망을 선사한 영웅적 마라토너 남승룡, 손기정, 서윤복, 그리고 한국 마라톤의 민족주의 사건으로 일장기 말소사건과 관련된 민족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세포구조는 민족이며, 스포츠야 말로 이의 동류의식과 결속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데서 한국 마라톤의 민족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정치의도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의해 '강요된 충성'을 수단으로 만들어진 낙착된 국가주의와는 달리, '자발적 애국'을 통한 민족정신의 고양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한(2004). **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생애와 민족사적 의미**. 서울: 21세기교육사.
- 김동규(1999). **세계체육사**.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동규(2010).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맥락: 새로운 시선. **한국체육철학회지**, **18**(34), 39-59.
- 김동규, 주동진(2004). 몽양 여운형의 체육문화활동. **한국체육학회지**, **43**(3), 29-40.
- 김세호(2006). **한국육상경기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마라톤경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나현성(1985). **육상경기**. 서울: 교학연구사.
- 대한육상경기연맹(1988). **육상경기 21호**. 서울 : 한국육상진흥회.
- 대한육상경기연맹(1993). **육상경기 31호**. 서울 : 한국육상진흥회.
- 대한육상경기연맹(1994a). **육상경기 33호**. 서울 : 한국육상진흥회.
- 대한육상경기연맹(1994b). **육상경기 34호**. 서울 : 한국육상진흥회.
- 대한육상경기연맹(1996). **육상경기 43호**. 서울 : 한국육상진흥회.
- 대한육상경기연맹(1997a). **육상월드 2호**. 서울 : 대한육상경기연맹.
- 대한육상경기연맹(1997b). **육상월드 3호**. 서울 : 대한육상경기연맹.
- 박용남, 하남길(2012). 마라톤 기원설의 사실성과 허구성. **한국체육사학회, 2012 한국체육사학회 하계학술대회**.
- 박종진(1999). **한국 마라톤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발전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박종진, 김동규(2011). 손기정의 마라톤경기에 비취진 스포츠내셔널리즘. **2011년 전국체육대회 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 박종진, 김동규(2012). 한국 마라톤의 전개와 민족사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85-198.
- 박호성(2002). 국제 스포츠 활동과 사회통합의 상관성,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42(2), 93-110.
- 서기원, 양재성(1999). 서기원 양재성의 마라톤 이야기. 서울: 삶과 꿈.
- 성동진, 윤탁영(1989). **조깅과 마라톤**. 서울: 명진당.
- 손기정(1983).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서울: 한국일보사.
- 손현(2011). 대기온도와 상대 습도가 여자 마라톤 완주 기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환(2006). 파하 이길용의 생애와 체육사상. **한국체육사학회지**, 11(1), 13-24.
- 손환(2012). 베를린올림픽을 통해서 본 손기정의 민족의식. **영웅 손기정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송형석(2006). 도핑은 왜 비도덕적인가? -도핑금지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5(4), 31-39.
- 신현경(1996). **한국 마라톤경기의 사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성섭, 조문기(2012). 조선마라손보급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체육학회지**, 51(2), 1-10.
- 유근직, 박기동, 김명권(2012). 일본 언론매체의 손기정마라톤 우승 보도에 나타난 민족주의. **2012 한국체육사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재희(2004). **한국사회 마라톤 붐(boom)현상과 여가문화로서 마라톤에 관**

- 한 분석 마스터즈 마라톤 매니아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종은(2003). 민족과 국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문학과 사회**, **16**(2), 739-763.
- 임석원, 조문기(2009a). 제51회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1947) 출전 한국선수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43-156.
- 임석원, 조문기(2009b). 지암(志巖) 서윤복(徐潤福)의 생애와 체육활동.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1), 65-74.
- 정준영 역 / Cashmore, E. (2001).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진석(2012). 손기정과 언론의 민족의식 고취. **2012 한국체육사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찬모(1997).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역사적 의의. **체육사학회지**, **2**(1), 37-47.
- 조동표(1995). **마라톤은 살아있다**. 서울: 삶과 꿈.
- 주동진(2011). 이길용과 배재의 근대체육: 배재학당 출신 이길용 선생의 일장기 삭제 사건과 독립운동. 졸업앨범을 통해 본 한국 근대인물.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3**.
- 주동진(2012). 손기정 다시 보기. **2012 한국체육사학회 하계학술대회**.
- 주동진, 고흥렬(2004). **몽양 여운형의 체육문화활동**. 서울: 21세기교육사.
- 주동진, 김동규(2006). 이길용(李吉用) 체육문화 활동의 스포츠내셔널리즘적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14**(3), 99-114.
- 최인진(2006). **일장기를 지우다**. 서울: 신구문화사.
- 최충식(1988). 한국 마라톤 기록향상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4**, 350.

- 하정희(2012). 스포츠영웅 손기정의 체육활동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국기자연맹(1993). 일장기 말소의거 지자 이길용. 서울 : 인물연구소
- 황영조(1999). 마라토너 손기정의 생애와 사상.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황영조(2004). 황영조 마라톤 스쿨. 서울: 한언.
- 황영조(2009). 마라톤의 문화적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황옥철(1998). 미국스포츠의 태동과 성장. 서울: 신원문화사.
- Coleman, D., & Iso-Ahola, S. E. (1993). Leisure and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111-128.
- David, L. C. (1986). *Inside running basics of sports physiology*. Indianapolis : Benchmark press, inc.
- Derek, C. (1980). *Running to the top*. California : anderson world inc.,
- Jekins, R. (1996). *Social Identity*. London: Routledge.
- Jose, M. B., Julio alvarez, track and field athletics a basic coaching manual, I.A.A.F., Spain, 1979.
- Suozzo, A. (2001). The Chicago marathon and urban renaissance. *Journal of Popular Culture*, 36(1), 142-159.
- Weiner, B., Frieze, I., Kukla, A., Reed, L., Rest, S., & Rosenbaum, R. (1971).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Wilbur, S. P. (1997). *Internet Culture. edited by David Poter*. New York: Routledge.

孫基楨(1985). *ああ月桂冠に涙*. 東京: 講談社.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http://www.daegu2011.org>)

IOC 홈페이지(<http://www.olympic.org>)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http://www.sonkeechungrun.com>)

네이버 홈페이지(www.100.naver.com)

뉴욕마라톤 홈페이지(www.nyrrc.org)

다음 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

다음 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7m0022b>)

대한육상경기연맹(1982. 1983). 기록집.

대한육상경기연맹(http://www.kaaf.or.kr/VER2/05_record/MP/MP01010W.aspx)

동아마라톤 홈페이지(marathon.danga.com)

동아일보(1936년 8월 11일자,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25일자)

마라톤온라인 홈페이지(www.marathon.pe.kr)

보스턴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bostonmarathon.org)

서울마라톤클럽 홈페이지(www.seoulmarathon.net)

야후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엠포스 백과사전(<http://endic.empas.com>)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EB%A7%88%EB%9D%BC%ED%86%A4>)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홈페이지(marathon.chosun.com)

조선일보(1936년 8월 11일자)

조선중앙일보(1936년 8월 13일자, 14일, 15일, 16일자)

코리아울트라런너스 홈페이지(www.KoreanUltrarunners.com)

<http://etv.donga.com/view.php?idxno=20110830004684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1876967&sid=0107&nid=007&type=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1876967&sid=0107&nid=007&type=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26010336330060020>

intervention(pp. 271-2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h. D. Thesis

The Development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rathons in Korea

Jong-Jin Par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Dong-Kyu Kim)

Marathon is special to Korea because it is related to nationalism since our first participation in national contest including Olympic. It was Japanese colonial era when we first participated in marathon, and Ki-Jung Son and Seung-Yong Nam, their domination of the world in marathon, make us to have pride during this period. Along with this, not only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press occurred, such as obliteration of the national flag of Japan, but also the possibility of the will of independence through sports had been identified. Korea achieved the reputation such as 'Kingdom of Marathon', by keep making good results in international events. In spite of recent slump, Korea still has fame with 'Marathon powerhous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rathon also plays a role in national symbol.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implicit of historical meaning of marathons in Korea based on its history and flow of events. Drawn conclusions from discussion process are followed.

First, origin of marathon was examined to consider the history of marathon and two different hypotheses were found. One is the traditional theory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remembrance of one soldier for his accomplishment in the war between ancient Athens and Persia. The other one is the fabrication theory which

is the case to create national hero. The history of marathon was also examined through the record of the event from the very first Athens Olympic and the record is remaining as 2hr 3min 38sec and 2hr 15min 25sec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Second, the forming process of marathon was explored according to introduction process and development phase, recorded history and person history separately. Above all, athletic sports started with the name 'Hwa-Ryu Hoe' on the 2nd of May in 1896, as an introduction process of marathon in Korea. Breakaway from the field day, the record of Bong-Ju Ma became the first official record in Korea at the 'Cho-seon shingung' athletic meet in 1927. The development phase of marathon was restructured with macroscopic viewpoint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and data. It is discussed with five segmentalized steps; beginning of Korean marathon, revival of Korean marathon, recession of Korean marathon, transition period of Korean marathon, and struggling period of Korean marath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rathons in Korea is discussed as follow. First, it played a role in outpouring suppressed feel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econd, it got rid of grief and sorrow as undeveloped country and imprinted the existence of Korea. Lastly, it allowed Korea to achieve the image of sports powerhouse with excellent results at several international events. Moreover, Un-Hyeong Yeo and Gil-Yong Lee who obliterated the national flag of Japan; Seung-Ryong Nam, Gi-Jeong Son and Yun-Bok Suh who gave us national pride and hope through marathon; and the national significance of obliteration of the national flag of Japan were explored in the section of people and affairs of marathon in Korea.

Fundamental structure of globalization is nationality, and sport can be the consciousness of kind and short cut of unity. Different from nationalism, which uses 'forced loyalty' as a mean of political intentions, marathon in Korea can be the symbol of uplifted national spirit through 'voluntary patriotism'.

부록

1. 남자 마라톤경기 세계 랭킹 50위 기록(2012년 11월 현재)

순위	기록	이름	국적	대회명	순위	대회일
1	2:03:38	Makau, Patrick	KEN	Berlin	1	9/25/11
2	2:03:59	Gebrselassie, Haile	ETH	Berlin	1	9/28/08
3	2:04:26	Gebrselassie, Haile	ETH	Berlin	1	9/30/07
4	2:04:53	Gebrselassie, Haile	ETH	Dubai	1	1/18/08
5	2:04:55	Tergat, Paul	KEN	Berlin	1	9/28/03
6	2:04:56	Korir, Sammy	KEN	Berlin	2	9/28/03
7	2:05:15	Lel, Martin	KEN	London	1	4/13/08
8	2:05:24	Wanjiru, Samuel	KEN	London	2	4/13/08
9	2:05:30	Goumri, Abderrahim	MAR	London	3	4/13/08
10	2:05:36	Kwambai, James Kipsang	KEN	Berlin	2	9/28/08
11	2:05:38	Khannouchi, Khalid	USA	London	1	4/14/02
12	2:05:42	Khannouchi, Khalid	MAR	Chicago	1	10/24/99
13	2:05:48	Tergat, Paul	KEN	London	2	4/14/02
14	2:05:49	Kipsang, William	KEN	Rotterdam	1	4/13/08
15	2:05:50	Rutto, Evans	KEN	Chicago	1	10/12/03
16	2:05:56	Khannouchi, Khalid	USA	Chicago	1	10/13/02
17	2:05:56	Gebrselassie, Haile	ETH	Berlin	1	9/24/06
18	2:06:05	da Costa, Ronaldo	BRA	Berlin	1	9/20/98
19	2:06:14	Limo, Felix	KEN	Rotterdam	1	4/4/04
20	2:06:15	Munji, Titus	KEN	Berlin	3	9/28/03
21	2:06:16	Tanui, Moses	KEN	Chicago	2	10/24/99
21	2:06:16	Takaoka, Toshinari	JPN	Chicago	3	10/13/02
21	2:06:16	Njenga, Daniel	KEN	Chicago	2	10/13/02
21	2:06:16	Mutai, Emmanuel	KEN	London	4	4/13/08
21	2:06:16	Rutto, Evans	KEN	Chicago	1	10/10/04

순위	기록	이름	국적	대회명	순위	대회일
26	2:06:17	Hall, Ryan	USA	London	5	4/13/08
27	2:06:18	Tergat, Paul	KEN	Chicago	4	10/13/02
27	2:06:18	Rutto, Evans	KEN	London	1	4/18/04
29	2:06:20	Gebrselassie, Haile	ETH	Amsterdam	1	10/16/05
30	2:06:23	Cheboror, Robert	KEN	Amsterdam	1	10/17/04
31	2:06:29	Mutai, Emmanuel	KEN	Amsterdam	1	10/21/07
32	2:06:32	Wanjiru, Samuel	KEN	Beijing	1	8/24/08
33	2:06:33	Rotich, Michael	KEN	Paris	1	4/6/03
33	2:06:33	Thys, Gert	RSA	Tokyo	1	2/14/99
35	2:06:35	Gebrselassie, Haile	ETH	London	3	4/14/02
36	2:06:36	Pinto, Antonio	POR	London	1	4/16/00
36	2:06:36	Zwierzchiewski, Benoit	FRA	Paris	2	4/6/03
38	2:06:38	Korir, Sammy	KEN	Rotterdam	1	4/9/06
39	2:06:39	Kipsang, William	KEN	Amsterdam	1	10/19/03
39	2:06:39	Limo, Felix	KEN	London	1	4/23/06
39	2:06:39	Ejigu, Deriba Merga	ETH	London	6	4/13/08
39	2:06:39	Wanjiru, Samuel	KEN	Fukuoka	1	12/2/07
43	2:06:40	Kebede, Tsegay	ETH	Paris	1	4/6/08
44	2:06:41	Lel, Martin	KEN	London	2	4/23/06
45	2:06:42	Limo, Felix	KEN	Amsterdam	2	10/19/03
46	2:06:44	Kirui, Paul	KEN	Rotterdam	2	4/9/06
46	2:06:44	Limo, Felix	KEN	Berlin	1	9/26/04
46	2:06:44	Kiprono, Josephat	KEN	Berlin	1	9/26/99
49	2:06:45	Limo, Richard	KEN	Amsterdam	2	10/21/07
50	2:06:46	El Mouaziz, Abdelkader	MAR	Chicago	5	10/13/02

2. 여자 마라톤경기 세계 랭킹 50위 기록(2012년 11월 현재)

순위	기록	이름	국적	대회명	순위	대회일
1	2:15:25	Radcliffe, Paula	GBR	London	1	4/13/03
2	2:17:18	Radcliffe, Paula	GBR	Chicago	1	10/13/02
3	2:17:42	Radcliffe, Paula	GBR	London	1	4/17/05
4	2:18:47	N'dereba, Catherine	KEN	Chicago	1	10/7/01
5	2:18:56	Radcliffe, Paula	GBR	London	1	4/14/02
6	2:19:12	Noguchi, Mizuki	JPN	Berlin	1	9/25/05
7	2:19:19	Mikitenko, Irina	GER	Berlin	1	9/28/08
8	2:19:26	N'dereba, Catherine	KEN	Chicago	2	10/13/02
9	2:19:36	Kastor, Deena	USA	London	1	4/23/06
10	2:19:39	Yingjie, Sun	CHN	Beijing	1	10/19/03
11	2:19:41	Shibui, Yoko	JPN	Berlin	1	9/26/04
12	2:19:46	Takahashi, Naoko	JPN	Berlin	1	9/30/01
13	2:19:51	Chunxiu, Zhou	CHN	Seoul	1	3/12/06
14	2:19:55	N'dereba, Catherine	KEN	London	2	4/13/03
15	2:20:38	Chunxiu, Zhou	CHN	London	1	4/21/07
16	2:20:42	Adere, Berhane	ETH	Chicago	1	10/22/06
17	2:20:43	Okayo, Margaret	KEN	Boston	1	4/15/02
17	2:20:43	Loroupe, Tegla	KEN	Berlin	1	9/26/99
19	2:20:47	Bogomalova, Galina	RUS	Chicago	2	10/22/06
19	2:20:47	Loroupe, Tegla	KEN	Rotterdam	1	4/19/98
21	2:20:57	Radcliffe, Paula	GBR	Helsinki	1	8/14/05
22	2:21:01	Yingjie, Sun	CHN	Beijing	1	10/16/05
23	2:21:06	Kristiansen, Ingrid	NOR	London	1	4/21/85
24	2:21:11	Chunxiu, Zhou	CHN	Beijing	2	10/16/05
25	2:21:12	N'dereba, Catherine	KEN	Boston	2	4/15/02
26	2:21:16	Kastor, Deena	USA	London	3	4/13/03
27	2:21:18	Noguchi, Mizuki	JPN	Osaka	1	1/26/03
28	2:21:21	Yingjie, Sun	CHN	Beijing	2	10/20/02
28	2:21:21	Benoit, Joan	USA	Chicago	1	10/20/85
30	2:21:22	Shibui, Yoko	JPN	Chicago	3	10/13/02
31	2:21:25	Kastor, Deena	USA	Chicago	1	10/9/05
32	2:21:29	Petrova, Lyudmila	RUS	London	2	4/23/06
33	2:21:30	Dita, Constantina	ROU	Chicago	2	10/9/05
34	2:21:31	Magarsa, Assale Tafa	ETH	Berlin	2	9/28/08
34	2:21:31	Zakharova, Svetlana	RUS	Chicago	4	10/13/02

순위	기록	이름	국적	대회명	순위	대회일
36	2:21:33	N'dereba, Catherine	KEN	Chicago	1	10/22/00
37	2:21:34	Wami, Getenesh	ETH	Berlin	1	9/24/06
38	2:21:37	Noguchi, Mizuki	JPN	Tokyo	1	11/18/07
39	2:21:45	Pippig, Uta	GER	Boston	1	4/18/94
39	2:21:45	Chiba, Masako	JPN	Osaka	2	1/26/03
39	2:21:45	Wami, Getenesh	ETH	London	2	4/21/07
42	2:21:46	Chepkemei, Susan	KEN	London	3	4/23/06
43	2:21:47	Takahashi, Naoko	JPN	Bangkok	1	12/6/98
44	2:21:49	Takahashi, Naoko	JPN	Berlin	1	9/29/02
45	2:21:51	Sakamoto, Naoko	JPN	Osaka	3	1/26/03
46	2:21:52	Adere, Berhane	ETH	London	4	4/23/06
47	2:21:58	Bogomalova, Galina	RUS	London	5	4/23/06
48	2:22:01	N'dereba, Catherine	KEN	Helsinki	2	8/14/05
49	2:22:07	Loroupe, Tegla	KEN	Rotterdam	1	4/20/97
50	2:22:12	Yamaguchi, Eri	JPN	Tokyo	1	11/21/99

3. 국내 마라톤대회 창설

순위	연도	대 회	비고
1	1896	하류회	허치슨
2	1898	순수 육상 경기 대회 실시	외국인 6개 분교
3	1906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기구에 의한 육상 경기 대회 실시	체육구락부
4	1912	경성 8개교 육상 경기 대회 실시	체육구락부
5	1920	25M 마라톤 대회 실시	조선체육협회
6	1923	경인 역전 마라톤 대회	경성일보사
7	1925	26M 285yd 정규 마라톤 코스 등장. 현 전국 체전 마라톤으로 발전	조선 체육 협회
8	1931	동아 마라톤 대회	동아일보사
9	1947	조일 마라톤 대회	조선일보사
10	1954	경부 역전 마라톤 대회	한국일보사
11	1970	경호 역전 마라톤 대회	중앙일보사
12	1971	전국 고교 통일 역전 마라톤 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13	1978	진부 역전 마라톤 대회	부산일보사
14	1982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15	1983	매현 역전 마라톤 대회	윤봉길기념사업회
16	1984	전국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	코오롱 그룹
17	1988	전국 실업 하프 마라톤 대회	실업연맹

4. 한국 마라톤경기 최고 기록의 변천

순위	기록	성명(소속)	작성년월일	대회명
1	3° 29' 37"	마봉옥(경성)	1927. 10. 15.	조선 신궁대회
2	2° 57' 34"	마봉옥(경성)	1928. 10. 13.	조선 신궁대회
3	2° 36' 50"	이성근(경성)	1930. 10. 11.	조선 신궁대회
4	2° 26' 12"	김은배(양정고보)	1931. 10. 10.	조선 신궁대회
5	2° 25' 14"	손기정(양정고보)	1935. 4. 27.	조선마라톤선수권
6	2° 24' 07"	이창훈(중앙대)	1959. 9. 28.	경인 국제마라톤대회
7	2° 23' 56"	김연범(석탄공사)	1962. 10. 25.	전국체육대회
8	2° 21' 54"	이상훈(한국전력)	1963. 10. 27.	올림픽 예선대회
9	2° 21' 25"	이상훈(한국전력)	1964. 6. 13.	종합선수권대회
10	2° 20' 19"	김복래(석탄공사)	1965. 5. 4.	종합선수권대회
11	2° 19' 07"	김복래(석탄공사)	1966. 3. 13.	동아마라톤대회
12	2° 18' 18"	박봉근(해군)	1969. 10. 28.	전국체육대회
13	2° 17' 34"	김차환(한국전력)	1970. 3. 22.	동아마라톤대회
14	2° 17' 01"	김차환(한국전력)	1973. 3. 25.	동아마라톤대회
15	2° 16' 15"	문홍주(건국대)	1974. 3. 24.	동아마라톤대회
16	2° 14' 59"	이홍렬(경희대)	1984. 3. 18.	동아마라톤대회
17	2° 14' 06"	유재성(한국체대)	1986. 3. 16.	동아마라톤대회
18	2° 12' 21"	이종희(제일제당)	1987. 3. 15.	동아마라톤대회
19	2° 11' 34"	김완기(코오롱)	1990. 3. 18.	동아마라톤대회
20	2° 11' 02"	김완기(코오롱)	1991. 11. 3.	조일마라톤대회
21	2° 08' 47"	황영조(코오롱)	1992. 2. 2.	베르다이 마라톤대회
22	2° 08' 34"	김완기(코오롱)	1994. 3. 20.	동아마라톤대회
23	2° 08' 09"	황영조(코오롱)	1994. 4. 18.	보스톤 마라톤대회
24	2° 07' 20"	이봉주(코오롱)	2000. 2. 12	도쿄마라톤대회

5. 한국(남자) 마라톤경기의 역대 올림픽 성적

횟수	연 도	개 최 지	참 가 자	순위 및 기록
10	1932	L. A	김은배	6위 - 2시간 37 분 28 초
			권태하	9위 - 2시간 42 분 52 초
			황수을	기권
11	1936	베를린	손기정	1위 - 2시간 29 분 19 초
			남승룡	3위 - 2시간 31 분 42 초
14	1948	런던	홍종오	25위
			서운복	27위
			최윤칠	기권
15	1952	헬싱키	최윤칠	4위 - 2시간 26 분 36 초
			최충식	2시간 41분 23초
			홍종오	기권
16	1956	멜버른	이창훈	4위 - 2시간 28 분 45 초
			최충식	12위 - 2시간 36 분 53 초
			임동하	기권
17	1960	로마	이창훈	20위 - 2시간 25 분 22 초
			이상철	47위
			김연범	기권
			송삼섭	기권
18	1964	도쿄	이상훈	11위 - 2시간 22분 02초
			김연범	16위 - 2시간 24분 40초
			주형걸	50위 - 2시간 41분 08초
19	1968	멕시코	이명정	29위 - 2시간 38분 52초
			김봉래	30위 - 2시간 43분 56초
			이상훈	46위 - 2시간 52분 46초
23	1984	LA	이흥렬	37위 - 2시간 20분 56초
			채홍락	48위 - 2시간 23분 33초
			김원식	58위 - 2시간 30분 57초
24	1988	서울	김원탁	18위 - 2시간 15분 44초
			유재성	31위 - 2시간 20분 11초
25	1992	바르셀로나	황영조	1위 - 2시간 13분 23초
			김재룡	10위 - 2시간 15분 01초
			김완기	28위 - 2시간 18분 32초
26	1996	애틀랜타	이봉주	2위 - 2시간 12분 39초
			김이용	12위 - 2시간 16분 17초
			김완기	기권

6. 연대별 대표적 인물중심의 변천

순	연대	이름	활약상
1	1920	최홍석	경성 일주 마라톤 대회
2	1927	마봉옥	제2회 조선 신궁 마라톤 대회 우승
3	1928	마봉옥	제3,4회 조선 신궁 마라톤 우승
3	1929	이성근	제6회 조선 신궁 마라톤 우승
4	1930	손기정, 남승룡	한국 마라톤에 등장
5	1931	김은배, 권태하	한국 마라톤에 등장
6	1932	김은배, 권태하	제10회 올림픽 출전 6위, 9위
7	1933	손기정, 변용환	제2회 동아 마라톤 우승 제3회 동아 마라톤 우승
8	1934	유장춘	일본국제 육상경기 500m 우승
	1935	손기정, 남승룡, 유장춘	올림픽 출전 예선 - 일본에 출전
9	1936	손기정, 남승룡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출전 1,3위 세계 신기록수립
11	1937	남승룡	제13회 관동 육상 마라톤 1위
12	1938	류관홍	제9회 동아 마라톤 우승
13	1939	오동석 심영룡	제15회 조선 신궁 마라톤 우승 제10회 동아 마라톤 우승
14	1940	현종효	제11회 동아 마라톤 우승
15	1941 -45		
16	1946	서윤복	세계 재패 1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 우승
17	1947	서윤복, 남승룡 홍종오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 10위 제1회 조선일보 마라톤 우승
18	1948	홍종오, 서윤복 최명산	제14회 런던 올림픽 25,27위 제2회 조일 마라톤 우승
19	1949	성철경	제3회 조일 마라톤 우승
20	1950	함기용, 송윤길, 최윤칠 최충식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1,2,3위 제4회 조일 마라톤 우승
21	1951		6.25동란
22	1952	최윤칠	제15회 헬싱키 올림픽 4위
23	1953	김치명	제7회 조일 마라톤 우승
24	1954	최열수	제8회 조일 마라톤 우승
25	1955	송윤길, 임종우	제9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26회 동아 마라톤 우승
26	1956	이창훈, 최충식 한승철	멜버른 올림픽 4위, 12위 제27회 동아 마라톤 우승

순	연대	이름	활약상
27	1957	임종우, 한승철 김해룡	제61회 보스턴 마라톤 3위, 5위 제11회 조일 마라톤 우승
28	1958	오천택	제29회 동아 마라톤 우승
29	1959	이상철 정천권	제30회 동아 마라톤 우승 제13회 조일 마라톤 우승
30	1960	차대우 이창훈	제31회 동아 마라톤 우승 제17회 로마 올림픽 20위
31	1961	전윤진 강용태	제15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32회 동아 마라톤 우승
32	1962	김연범 한재덕	제16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33회 동아 마라톤 우승
33	1963	이상훈 김복래	제17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34회 동아 마라톤 우승
34	1964	이상훈, 김연범, 주형걸	제18회 도쿄 올림픽 출전 11, 16, 50위
35	1965	이명정	제36회 동아 마라톤 우승
36	1966	김복래, 유명중	제70회 보스턴 마라톤 14, 36위
37	1967	유명중	제38회 동아, 제21회 조일 마라톤 우승
38	1968	이명정, 김복래, 이상훈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출전 26, 30, 46위
39	1969	송금용	제40회 동아 마라톤 우승
40	1970	김차환, 강명광	제16회 아시아 경기 출전
41	1971	조재형	제17회 아시아 경기 출전
42	1972	박봉근	제26회 조일 마라톤 우승
43	1973	김차환	제70회 보스턴 마라톤 35위
44	1974	조재형 문홍주	제28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45회 동아 마라톤 우승
45	1975	조재형 문홍주	제29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46회 동아 마라톤 우승
46	1976	박원근, 이병택	제47회 동아 마라톤 우승 제30회 조일 마라톤 우승
47	1977	심현섭	제31회 조일 마라톤 우승
48	1978	김준용 박원근	제32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49회 동아 마라톤 우승
49	1979	남인규 유재성	제50회 동아 마라톤 우승 제33회 조일 마라톤 우승
50	1980	배은환	제51회 동아 마라톤 우승

순	연대	이름	활약상
51	1981	김학수 이홍열	제35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52회 동아 마라톤 우승
52	1982	김양곤 김주용 김중윤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 우승 제36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53회 동아 마라톤 우승
53	1983	정중모 최홍락	제37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54회 동아 마라톤 우승
54	1984	최진혁 이홍열	제38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55회 동아 마라톤 우승
55	1985	안예진 김원탁	제66회 전국체전 우승 제39회 조일마라톤 우승
56	1986	이춘근	제40회 조일마라톤 우승
57	1987	김재룡 이종희	제41회 조일마라톤 우승 제58회 동아마라톤 우승
58	1988	김원탁, 유재성 유진홍	제24회 서울 올림픽 18, 31위 제42회 조일 마라톤 우승
59	1989	김성수 임정태	제43회 조일 마라톤 우승 제60회 동아 마라톤 우승
60	1990	김원탁 송재필 김완기	제11회 북경 아시아 대회 우승 제44회 조일마라톤 우승 제61회 동아마라톤 우승
61	1991	김재룡 김완기	제62회 동아마라톤대회 우승 제45회 조일마라톤대회 우승
62	1992	황영조, 김재룡, 김완기 백승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 10, 28위 제46회 조일마라톤 우승
63	1993	김재룡 류영훈	제97회 보스턴마라톤 2위 제47회 조일마라톤 우승
64	1994	황영조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 우승
65	1995	황영조, 이봉주 이봉주	제99회 보스턴마라톤 4위, 11위 제66회 동아마라톤 우승
66	1996	이봉주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2위
67	1997	김이용	제68회 동아마라톤 우승
68	1998	오승근 김병렬	제51회 조일마라톤대회 우승 제79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우승